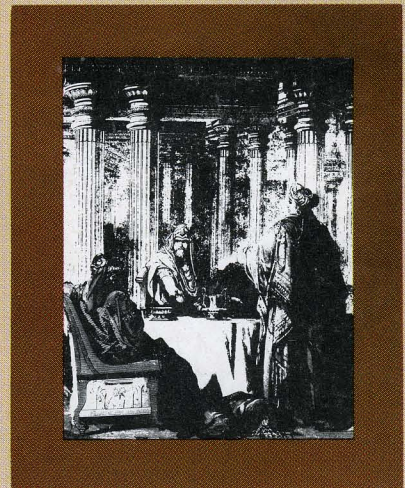


# 성도의 빛 9


1974



특집 :  
구약 :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 영감의 메시지

성찬을 들기 전에 우리는 마음과 손을 깨끗이 해야 하고 우리의 동료에 대한 증오감을 버려야 하며 우리의 이웃과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모든 계명을 지키려는 소망을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게 되며 영적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

1870년 4월 4일 출생

1951년 4월 4일 사망

8대 대관장



# 순서

영감의 메시지		조지 알버트 스미스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2	매리온 지 롬니
역사의 개관 :		
모세에서 말라기까지	5	에드워드 제이 브란트
구약성서 소개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8	
문자의 기원	10	휴 니블리
질의응답	13	
모세의 사명 속박에서 벗어남	14	시드니 비스페리
구약성서	17	
울손 에프 휘트니 장로	18	레온 하트손
노르웨이의 친구	21	일리너 샬
소년과 새 한마리	22	그레이스 엠 프랫
심심풀이	25	
친구가 친구에게	26	스펜서 더블류 김볼
비극인가? 운명인가?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계획	32	스펜서 더블류 김볼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37	매리온 지 롬니
깨끗할 지어다		
주님의 택함을 받은자	41	앤 일돈 태너
1973년도 통계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	45	
선교부장단 메시지	46	
내외소식	47	

## 대관장단

스펜서 더블류 김볼  
앤 일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 십이사도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멜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취튼  
브루스 알 맥콩키  
엘 톰 페리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4년 9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110호

발행인 겸 편집인 : 엘 에드워드 브라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번역 :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 73-5331

발행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 서울 1409

인쇄인 : 삼화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 고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정가 1권 15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1,200원

일본, 홍콩, 마카오, 중국, 7불

필리핀, 월남, 라오스, 태국 9불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 14불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중근동아시아 18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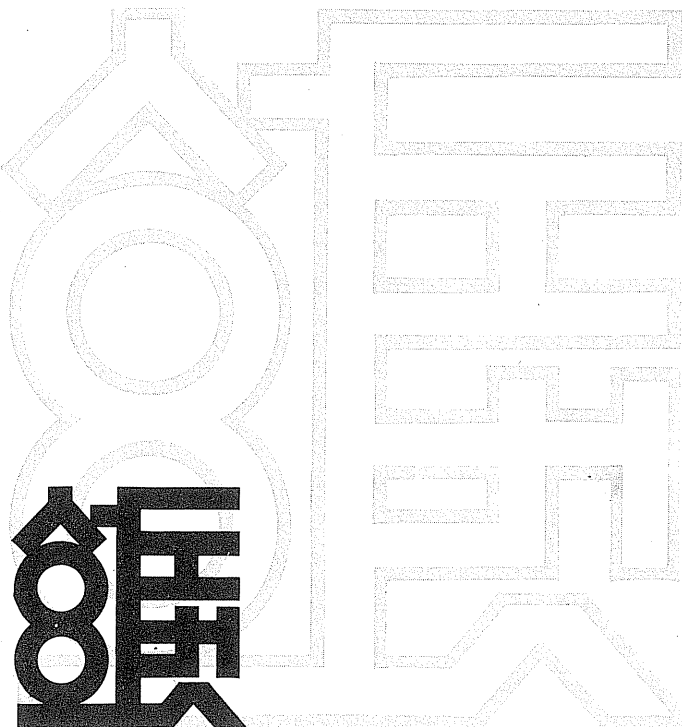
선박 3불

부제불허

제10권 제9호

1974년 9월호

성도의 벗



#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2 보좌

1974년9월호



감사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고맙게 여기는 느낌”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고귀한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보증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세로는 감사를 미덕의 어머니요, 모든 임무 중 으뜸가는 임무라고 말하며 감사라는 말을 인격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동의어로 사용한다. …베이트.”(새 명언집, 1961년 판, 246페이지)

위대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 대해 크게 감사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그가 리버티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받은 몇 통의 편지에 대해 마음 속으로 어떻게 느꼈는지 살펴 보기로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한 통은 엄마에게서 온 편지였고 다른 편지는 돈 카로스 스미스와 에드워드 패트리치 감독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우리를 위로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읽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도 모르고 있다가 그들의 편지를 읽었을 때 그들의 편지는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미풍처럼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편지로 기쁨만을 느낄 수는 없었습니다.

혈벗고 굶주리며 박해로 몸까지 상하게 된 성도들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비통한 마음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연민에 차 있었으며 우리의 눈에서는 샘물처럼 눈물이 흘렀다는 것을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무고하게 감방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연민의 정을 소속들이 일깨워 주는 우정의 표시인 친구의 음성이 얼마나 다정한 것인가를 상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한 순간에 이미 지난 일들을 상기시켜 주고 번갯불처럼 빠르게 현재를 붙잡아 두며 맹호처럼 달려가 우리의 생각을 미래에까지 미치게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미래와 과거 사이로 왕래하게 하며 마음 속으로 이것 저것 오만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마침내 모든 증오, 악과 미움, 과거의 불화, 오해와 잘못 처리한 일 등이 승리를 표상하는 소망에 의해 사라져 버립니다.”(교회 정사, 3권, 293페이지)

우리는 이미 받은 모든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많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맨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려야 하며 그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찌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 할찌어다.”(시편 100 : 3, 4)

앰울레크는 조램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축복을 날로 감사드리기 원하노라.”(엘마서 34 : 37, 38)

베냐민 왕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하늘 왕께 감사드림이 어떻겠느냐?”

“... 비록 너희가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를 창조하시고 보존 하시며, 기쁨을 누리고 서로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모 2 : 19, 20)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려도 다하지 못할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음

을 이기시고 승리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시어 참고 견디신 고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려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견디어 내신 고통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이 “하나님이요, 모든 자보다 가장 위대한 나를 고통으로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했으며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으므로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라고까지 하게 하였느니라”(교성 19 : 18)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더우기 우리는 예수님이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우리가 그를 믿는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 참고 견디신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어떠한 인간도 그 고통을 견디어 낼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죄 값을 갚을 수 없으니, 주님만이 하늘 문을 여실 수 있었네.”

(말일성도 찬송가, 156장 “저 멀리 예루살렘 성.”)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를 사랑하며 실제로 감사를 표시하기를 원합니다.

교리와 성약 59편에 기록된 계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 계시는 1831년 8월 7일 미조리주 인디펜덴스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시온에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헌납되었으며 신전 부지도 헌납되었습니다.

주님은 처음 다음과 같이 말하며 계시를 주셨습니다.

“... 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면서 이 땅에 올라 온 자들은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 밭이 시온의 땅을 딛고 있어 나의 복음을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의 좋은 것을 상으로 받게 될 것이요, 땅은 힘을 솟아나게 할 것임이니라.

“또 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는 하늘에서 축복으로 관을 쓰게 될 것이요, 필요한 때에 적지 아니한 계명과 계시를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저들에게 계명을 주며 이같이 이르노니, 곧 너는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를 섬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 (교리와 성약 59 : 1, 3-6)

주님은 우리의 주제인 “범사에 주 네 하나님께 감사하라.”(교성 59 : 7)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후 두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두 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명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 네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바치라.”는 계명이며

둘째 계명은,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게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라는 계명입니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그러나 날마다 어느 때든지 네 서약을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그러나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진실로 이것이 금식이요 기도니, 다시 말하면 기쁨이요 기도니라.”

“너희가 감사와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 일을 하면, 크게 웃으면서는 하지 말지니 이는 죄니라.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하면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면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 될 것이요...”

“또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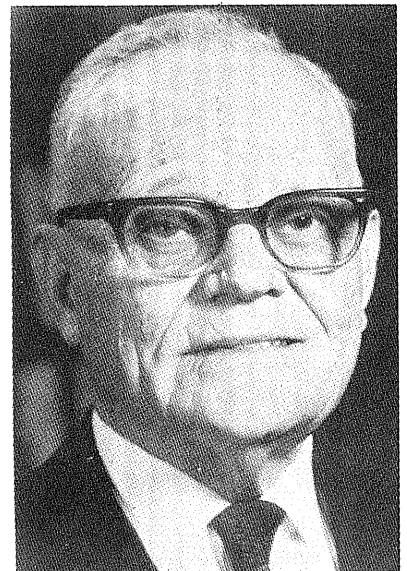
“... 이 일을 배울지니, 곧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평

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느니라.”(교리와 성약 59 : 8-16, 20-23)

우리가 들을 귀를 가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계명에 귀 기울이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계명을 지켜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섬기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킬지어다.”(교리와 성약 42 : 29)

☐



메리온 지 롬니 부대관장

**역** 구약성서는 어떤 책이며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가? 오랜 옛날에 일어난 사건에 관한 기록이 오늘날 어떤 가치가 있을까? 구약성서의 내용은 말일성도들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방대한 내용을 가진 이 책은 무감각한 목석이나 다름 바가 없다. 생소한 이름과 율법과 관습은 이 책의 내용이 난해하다는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같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책의 다양성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올바른 견지에서 관찰해 볼 때 구약성서는 매우 값진 경전이다. 이 책은 창세 때부터 시작하여 절정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들에 관한 역사의 전모를 펼쳐 준다. 이 책에는 역사적인 자료로서의 상세한 연대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그 대신 이 책의 내용은 인류의 운명을 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상 중요한 사건에 대해 증거해 준다. 이 기록은 복음의 원리와 진리 뿐만 아니라 복음에 담겨있는 성약을 가르쳐 주는 해설과 간증과 예언을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약성서는 계시와 성약에 관련된 다섯 가지 중요한 복음의 경륜의 시대를 다룬다. 아담,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는 선정된 사건만을 취급하여 요약 형식으로 다루어져 있다. 이러한 경륜의 시대는 모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 내용의 80퍼센트가 아브라함의 경륜의 시대와 성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정착에 관한 것이다.

구약성서의 나머지 20퍼센트에서 그 중 90퍼센트는 다섯 번째 복음의 시대인 모세의 경륜의 시대의 광범위한 기록을 다루고 있다. 이 경륜의 시대는 애굽에 속박된 이스라엘 백성

# 역사의 개관: 모세에서 말라기 까지

에드워드 제이 브란트 씀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 담당

의 시대에서 시작하여 페르샤의 속국인 약속의 땅에 살던 유대 백성의 시대에서 끝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의 기록을 살펴 보면 아홉 단계의 중요한 시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 시대의 기록은 구약성서 이야기의 일부로 실려 있다.

첫째 시대가 모세 시대이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는 처음 모세의 유년 시절에 관하여 간단히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 속박된 때부터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한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시련과 축복, 순종과 불순종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이드로, 여호수아는 이 120년 동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30페이지 참조)

자세히 살펴 보면 대부분의 해설은 이 중간의 4년이 채 못되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계시된 성약, 계명, 의식은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주어진 것이다. 주님은 그와 그의 종들에게 보여 주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따라 그들에게 그의 왕국의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보여 주신 관심은 이 시대에 관한 경

전상의 기록에 잘 설명되어 있다. (36페이지 참조)

그 다음 시대는 여호수아서에 요약된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대이다. 약 20년에 걸친 이 기간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찬 일과 그 후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 기업을 땅을 얻으려고 애쓴 투쟁에 관하여 말해 준다. 이 시대의 종말이 다가 올 무렵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계명을 그들에게 편리한 대로 적당히 지켜 나가는 태도를 보이고 계명을 충실히 지키지 않으므로써 결국 배도하게 되었다. (46페이지 참조)

세계 시대는 사사의 시대로 사사기에의 요약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시대 수십년 동안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배반으로 그들은 다른 백성들과 독립하여 약속의 땅에서 기반을 잡는데 주님으로부터 계속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삿 2:20-23) 예언자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 17:6; 21:25)

이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하고 백성들에게 법관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법

관으로 부르시어 종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일을 돕게 하셨다. 다른 이들은 권세를 얻고 백성의 유익을 위해 백성을 재판하는 권리를 갖기 위해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그들의 종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여러 종족이 살고 있는 지역을 관찰하는 자도 있었다.

언급된 15명의 사사(법관) 중 8명에 대해서만 부분적이거나 그들의 사사의 직분(법관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 드보라와 기드온은 그들의 백성을 돕기 위해 부름받은 의로운 사람들 가운데 모범을 보인 자들이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는 간악함과 집권에 관한 것이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께 바치는 헌신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임무를 의롭게 성취하지 못한 것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구약 시대 중 이 시대에서 릿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 볼 수 있다. 모압 땅에서 온 충실한 개종자인 릿은 다윗의 증조할머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었다.

사사의 시대는 제사장이요 사사(법관)인 엘리와 이스라엘 온 땅에서 제사장과 사사와 예언자로 세우심을 입은 사무엘에 관한 기록이 수록된 사무엘상의 처음 장에서 끝난다.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기꺼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았으며 오랜 세월을 두고 기다리던 예언자를 배척하고 세속적인 국가의 방법에 따라 왕을 추대하려 하였다.

사무엘상의 나머지 기록은 모세의 경륜의 시대의 네째 단계인 사울의 통치 시대를 설명해 준다. 40년에 걸쳐 통치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정 역사는 겸손한 종의 등장과 자기의 청지기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불순종하여 결국 주님께에서 버림받은 교만하고 질투심이 많은 자의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말해 준다. 이 시대는 다윗

이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때이기도 하다.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신앙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요나단의 진실한 “형제”로서 겪은 다윗의 경험담은 경전 중에서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무엘하에는 그다음 시대인 다윗의 통치 역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는 7년간 족장으로 유다 족속을 다스렸으며 그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받아 주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두 번째 왕으로 통치하였다. 다윗은 국가를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세웠다. 그는 그의 위대한 위력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혹과 욕정에 굴복하였으며 마침내 밧사바와 관련된 일로 살인을 하였다. 그후 그의 가정에는 예언자 나단이 예언한 대로 비극이 일어났다. 풍자적인 말로 표현한다면 영광스러웠으나 개인적으로 볼 때 비극적이었던 다윗의 통치는 종국의 구속을 바라는 소망을 가진 채 끝났던 것이다. (62페이지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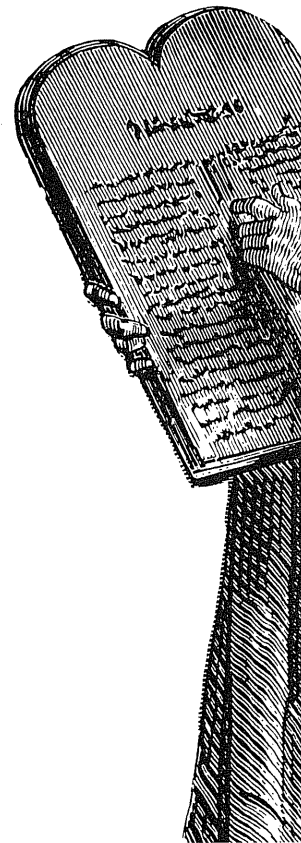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통치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는 구약성서 이야기 중 그 다음 책에 나온다. 열왕기상의 처음 2분의 1에는 솔로몬 왕의 성공과 실패가 약간 기록되어 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최초의 신전을 건축하여 주님께 헌납하였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강대국으로 번성하자 정교한 궁전, 정부 청사, 군사 요새가 건축되었다.

이스라엘은 무역의 중심지로서 또한 경제 대국으로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한 반면 그로 인해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왕족의 이족 결혼을 통한 정치적 협상과 조약으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솔로몬 왕의 타락의 씨앗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국가의 분열과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 분열된 왕국의 시대가 시작된다. 열왕기하의 모든 장

에는 분열된 나라가 점점 멸망하여 가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발생한 권력 투쟁은 그 지역에서 동화된 시므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백성과 유다 지파에서 끝나 마침내는 이들이 연합하여 유다 왕국이라 불리는 남방 왕국이 서게 되었다. 북방의 나머지 열 지파와 한 지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족속은 다른 족속들을 지배한 지파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왕국 또는 때로는 에브라임이라 불리는 왕국을 세웠다.

이 시대에 관한 경전의 기록을 참조하는 데 난점이 있는데 이는 이 기록이 얼마 동안 한 왕국에 관하여 번갈아 가며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록에는 소수의 왕에 대해서만 그들의 생애에서의 중요한 사건이 다루어져 있으므로 이야기 도중에 시대





가 바뀌기도 한다. 북방 이스라엘 왕국의 연대는 섞여 있는데 연대를 모두 합하면 2세기에 달하며 이 동안 20여명의 왕이 등장한다. 이들의 통치기간은 몇 달에서 40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잘 알려진 왕은 여로보암, 아합, 예후, 호세아이다.

주님께서 이 나라에 세워 주신 예언자에는 엘리사, 엘리야, 아모스, 호세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나라가 진국하여 멸망할 때까지 그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부도덕한 백성이었으며 자매 왕국인 유다 왕국이나 인접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다. 기원전 722년에 모반하는 이스라엘을 앗수르인이 결국 정복했으며 이들 앗수르인들은 북방 왕국에 사는 지파의 거의 대부분을 그들의 본국으로 포로로 사로 잡아 갔다. 그후 이들은 속박에서 탈출하여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그 결과 이들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로 불리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남방의 유다 왕국은 21명의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근 3세기 반 동안이나 지속되었다. 솔로몬 왕의 아들 로호보암이 유다 왕국의 초대 왕으로 즉위하였다. 그다음으로 이 왕국을 다스린 통치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왕으로는 아사, 여호사밧, 웃시야, 히스기야, 요시야, 시드기야가 있다. 유다 왕국에서 살았던 주님의 성별된 종으로는 요엘,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등의 예언자가 있었다.

우상 숭배와 부도덕의 두 가지 사악함으로 인해 남방 왕국은 마침내 멸망한 것 같다. 그러나 왕들 중에는 의로운 강한 지도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백성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일부 개혁도 실시하였다. 기원전 587년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동안 유다 왕국의 백성의 사악함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였으며 그들은 바빌론인들에게 포로로 사로 잡혀 끌려 갔다.

주:역대상과 역대하는 근본적으로 서로 비슷한 책이며 사무엘하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실려 있는 기록을 보충해 주는 책이기도 하다.

유다 왕국의 많은 백성들이 북쪽 바빌론으로 끌려 감으로써 모세의 경륜의 시대 중 여덟 번째 시대 즉 유다 왕국의 백성의 유랑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시대에 관한 경전상의 기록은 대단히 불완전하다. 예언자 에스겔과 다니엘의 기록과 그후 에스더 왕후의 기록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들의 속박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약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는 동안 바빌론이 유다 왕국을 속국으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바사가 통치하게 되었다. 유다 왕국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선언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칙령은 구약성서 이야기 중 마지막 장에 소개되어 있다. 기록 보관자인 에스라가 쓴 에스라서와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임명된 느헤미야가 기록한 느헤미야서는 이 백성의 회복의 투쟁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의 지지를 받은 이 나라의 백성은 처음에 신전을 다시 건축하였으며 그후 계속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실지를 회복하였다. 경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유다 왕국의 백성의 시대는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의 경고로 끝을 맺고 있으며 말라기는 그들의 조상이 들었던 옛 선자자들의 말씀을 다시 전해 주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 왕국의 백성은 배도로 피로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모세의 경륜의 시대는 거의 천년이란 세월을 접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모세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이유는 이 백성에게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성약과 율법은 모세의 율법 곧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의식의 “몽학선생”(갈 3:24)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였으므로 율법이 가져다 주는 축복과 혜택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의 경험담과 계시로 알려진 예언자들의 말씀은 참되고 의로운 원리의 중요성에 대한 간증으로 남아 있다.

니파이는 시현을 통해 가르침을 받고 구약성서의 가치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였다. “...책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주님의 성약이 적힌 유대인의 기록이요, 이곳에 또한 성스런 예언자들의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니, 곧 낫쇠판에 새겨진 기록과도 흡사하나, 낫쇠판의 기록만큼 많지 않느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과 맺으신 성약이 적혀 있으며...귀중한 가치가 있는 책이라.”(니일 13:23)



# 구약성서 소개

## 출애굽기에서 말라기까지

# ישעיהו שמורת

1974년 9월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속박되어 있던 때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경위와 시내 반도까지 여행한 일에 관한 기록이다. 시내 반도에서 18개월간 머물어 있는 동안 일어난 일도 일부 기록되어 있다. 율법, 의식, 신권은 여호와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다. 이동 성소인 태버나클도 건립되었다.

레위기에는 법전(종교 및 일반), 신권 의식, 관례 및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지시가 실려 있다. 제물과 “모세의 율법”을 기념하는 제사에 관한 제도를 제정한 것도 이 책에 설명되어 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반도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행한 것에 관한 유일한 기록이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와 조직에 대해 대강 설명해 주며 약속의 땅으로 이동한 여행을 상세히 설명해 준다. 가나안 변방에서 발생한 배반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된다. 이때에 겪은 일이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이 기록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 도착하여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마친다는 내용으로 끝맺고 있다.

신명기는 “제이 율법서”라고 알려진 기록으로 이 책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한 마지막 설교가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과거 40년 역사를 일부 기록하고 있으며 율법, 제명, 제사, 의식에 대해 많이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운명에 관한 예언도 수록하고 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에 관한 기록이다. 그러나 이 기간 중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지역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다. 이 책은 약속의 땅이 각 지파가 상속할 땅으로 분할되는 것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백성에게 주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지시와 경고로 끝맺고 있다.

사사기에는 여호수아가 사망한 때부터 사무엘이 탄생한 때까지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 약간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시대에 기록된 룧기는 예외이다.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배도 상태에 이르게 된다.

룧기에는 사사의 시대에 일어난 한 모압여인의 개심에 대한 간증이 수록되어 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예언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업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의 성별에 관한 이야기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젊은 다윗에게 일어난 사건을 포함하여 사울 왕의 생애에 일어난 사건의 일부도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사무엘하는 다윗 왕이 사망할 때까지 그가 통치한사를 다루고 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사무엘, 나단, 갓)의 업적에 관한 몇 가지 이야기도 이 책에서 찾아 읽을 수 있다.

시편의 일부는 다윗이 쓴 것이다. 나머지는 그나

또는 다른 사람이 편집한 것이다. 시편에 수록된 대부분의 시는 다윗의 통치나 그 당시의 역사에 관한 것이다.

열왕기상은 다윗 왕의 사망과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의 통치에 관한 기록이다.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주님의 신전이 건립되어 헌납되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뒤 지파와 지도자들간에 일어난 알력으로 인해 왕국은 두 나라 즉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분리되었다. 이 기록은 두 왕국의 왕들에 관한 기사를 단편적으로 번갈아 가며 다루고 있다. 이 책에는 많은 예언자가 소개되고 있으나 특히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는 아합 왕의 일가의 통치 기간 중에 일어난 기사로 끝난다.

잠언은 다른 저자가 편집한 부분도 있으나 거의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일반적으로 계시의 책이라기 보다는 실생활과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에 관한 문학”으로 알려져 있다.

열왕기하는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 곧 앗수르인에게 사로잡혀 간 북방에 살던 지파의 멸망에 이르기까지 분열된 왕국에서 있었던 일을 요약한 기록이다. 그 다음으로 이 책은 바빌론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정복될 때까지 일어난 일을 다룬다. 이 시대의 예언자 중 이 기록 가운데 언급되는 예언자 소수에 불과하며 주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언급된다.

주 : 구약성서 중 그 다음에 나오는 책들 즉 요엘서, 요나서, 아모스서, 호세아서, 이사야서, 미가서, 나훔서, 스바니아서, 하박국서, 오바다서, 예레미야서는 기원전 850년부터 기원전 587년까지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의 백성들과 더불어 생활한 예언자에 관한 기록이다. 주로 이 책에는 책명으로만 예언자의 예언과 가르침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책에는 예언자의 업적의 일부만 기록되어 있으며 어떤 책에는 역사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역대상과 역대하는 창세 때부터 유다 왕국의 백성이 속박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간략하게 수록하고 있다. 기록의 어떤 부분은 간추린 설명으로 되어 있거나 계보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나머지 기록은 사무엘 하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수록된 기록과 비슷하거나 그 기록을 보충해 주는 기록이다.

주 : 느브갓네살 왕이 최초로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을 때(기원전 597년) 그는 그 당시 통치하고 있던 유다의 여호야긴 왕과 유다 왕국의 백성 중 수천명을 사로 잡아 갔다. (열상 24 : 10-16) 사로 잡혀 간 자들 가운데 에스겔이 있었으며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된다. 이 두 예언자는 바빌론에서 속박당하여 유랑하고 있을 때 활약한 유명한 지도자였다.

에스겔서는 주로 바빌론인들에 의해 최초로 예루살렘이 정복된 때부터 기원전 587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까지 에스겔이 적은 기록(예언)을 다룬다. 이 책에는 그 당시 유랑 생활을 하던 백성의 활동도 일부 나와 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과 그의 동료의 생애 동안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을 설명해 주는 기록이다. 이 책에는 다니엘의 예언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에스더서는 유다 왕국의 백성이 유랑하던 시절의 후기 동안 아니면 많은 사람이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 온 후에 바사에서 일어난 이야기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에스라서는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 유다 왕국의 백성이 유랑 생활을 버리고 다시 되돌아 온 것에 관한 기록이다. 신전이 다시 건립되었으며 에스라는 그의 백성을 모으고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되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에 수록된 기록의 연속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는다. 이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는 백성들 가운데서 여러 번 개혁을 단행하였다.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신전을 다시 건립하던 기간 중 에스라를 지원해 준 학개와 스가랴에 관한 기록이다. 그들의 기록에는 역사와 가르침과 예언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말라기서에는 예언자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나온 예언자 말라기의 기록이 일부 실려 있다. 그는 점점 심해지는 배도의 세력에 대항하며 유다 왕국의 백성에게 예언한 마지막 예언자였다. ㉔

מלכים

# 문자의 기원

휴 니블리  
제 2부

1974년 9월호

**기록**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기술은 제국의 건설도 가능케 해준다. 이는 기록만이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이미 눈에 보이지 않게 무덤 저편으로 사라져 버린 통치자의 말과 권능을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은 모든 것을 망각하게 하나 기록은 오랜 세월 동안 제왕의 명령과 판단을 보전해 주었다. <sup>42</sup> 왕은 스스로 자기의 제국을 통치함에 있어 자기가 하늘에 있는 신의 중개인이요 필기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sup>43</sup>

애굽의 바로 왕은 “성스러운 책을 소장해 두는 보관소의 주인”이 하늘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해 둔 참된 기록에 “왕의 이름을 기록해 두었을 때”에만 통치 권능을 가질 수 있었다. <sup>44</sup> 기록 보관소는 애

굽에서 생명의 집(일종의 보관소)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에는 만물의 생명이 달려 있는 기록이 비치되었다. <sup>45</sup>

하늘의 책이 언급될 경우에는 언제나 옛날의 전설에서는 물론 초기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전설에서도 하늘의 기록자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중재인으로 등장한다. <sup>46</sup> 바로 왕은 최초로 “자기가 성스러운 책을 소유하고 있음을 안자”이다. <sup>47</sup> 애굽의 신 뜻과 같이 예언자요 필기자인 바빌로니아의 신 나부는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결정해 주는 운명에 관한 ‘불변의 돌판’ 위에 모든 것을 기록한다. <sup>48</sup> 지상의 일과 하늘의 일을 조정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책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 되어 왔다. “너희보다 앞서 세상을 떠난 조상을 기록하라. …조상의 말이 기록된 것을 보라. 책을 펼쳐 읽고 베껴두라.” <sup>49</sup> 모든 기록 중에서 흥미있고 가장 중요한 기록은 바로 제보 기록이었으며…생명의 집은 뭐니뭐니 해도 제보 기록 보관소나 다름 없

\* 본 기사에서 니블리 박사가 언급한 신전은 이교도의 신전이다. 니블리 박사는 고대 백성의 전설을 모두 기록이 하늘에서 받은 은사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을 뿐이다. 예를 들면, 애굽인들이 거짓신을 숭배하였으나 기록에 관한 그들의 전설은 진리에 근거를 두었다. 이는 아담과 그의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모세서 6: 5-8 참조)

- hen sprache, 97 (1971), p. 7
- 46. H. Jimmeru, Keilinschriften und das Alte Testawent (Berlin, 1903) P. 405
- 47. Pyramid Tests, No. 167d.
- 48. Meissener, Babylonien und Assyrien (Heidelberg, 1927), II, 125.
- 49. A. Gardiner, in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1914), p. 25.
- 50. A. Gardiner, in JEA, 11:4
- 51. S. Schott, in “Machwort” to Sethis Von Bilde Zum Buchstacen (1964), p. 71.
- 52. A. Gardiner, in JEA, 24:158, of. 174f.

었다. 가디너씨는 웅대한 피라밋은 왕가의 제보 기록을 비장해 두기 위해 건축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sup>50</sup>

책을 베껴쓰고 연구하던 생명의 집은 초기부터 오늘날의 대학과 매우 흡사하였는데, <sup>51</sup> 이는 이곳에서 제반 학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sup>52</sup> 생명의 집은 언제나 신전\*의 일부였으며, 책에는 최초의 시가 수록되었다. 뮤즈 신들(애굽 신전 예배에 참여하여 시를 읊는 자들)이 신전에서 하는 일이란 셋별들과 함께 창세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자연히 찬송가와 같은 음악이 등장되었으며 최초의 기록은 음악 기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나오게 되었다. 찬송은 성스러운 그룹이나 합창단에서 불렀으며, 이로써 시와 음악과 무용이 신전으로부터 세상에 퍼져 나갔다.

창세를 찬미하는 찬송은 매년 신전에서 발표되는 순서의 하나였다. 그 노래는 체육 제전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구속을 묘사하였다. 대회의 승리자는 제사장으로 왕이 되었으며 그의 대관식과 결혼식이 이때 거행되었으며 이 행사는 그의 통치의 시작을 상징하는 근원이 되었다.

모든 국민이 이 행사에 참석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먼 지방에서 운반해 온 물건을 서로 교환하는 일이 성행되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재물을 신전에서 쓸 합당한 제물로 교환하는 데 필요하였으며 이로써 금융 업무와 상호 교환이

- 53. W. Otto, Die Musen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61)
- 54. So F. M. Heichetheim, in Epigraphica, An. XII 1-4 (1950), pp. 111-15.

- 42. A. Moret, Historie de l'Orien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1944), I, 96ff
- 43. Pyramid Text, No. 309-490
- 44. A. Moret, Rouyauté Pharaonique (Paris, 1902), p. 102
- 45. W. Barta, in Zeitschrift der ägyptise.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신전이 관측소로 쓰이기 시작하고 만사가 달력과 별과 관련되어 있었으므로 수학이 성행하였으며 천문학은 존중받는 학문이 되었다. 이외에도 역사학이 중시되었는데 이는 의식이 산 자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한 것임을 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추도하는 기념물을 제작함으로써 초상화, 조각, 회화 등이 장려되었다. 신전 건물이 우주를 측정하는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신전의 설계와 측정은 중요하였다. 따라서 신전 건축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그리고 신전을 중심지로 하여 모든 땅이 측정되고 구분되었으므로 기하학이 필요불가결하게 되었다. “태초에 하나님은 호러스(바로왕이 자기와 동일하다고 한 신)신에게 그가 애굽의 땅을 상속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으며 이 땅은 만물에 관한 주님의 반찬에 따라 책에 기록되어 있었다... 땅을 분할할 때 그 땅을 기록해 두라는 명이 주어졌다.”<sup>55</sup>

생명의 집에서 만들고 복사한 기록은 역시 그곳에서도 토론되었으며, 이것은 철학을 낳아 주었다. 그 기록은 대부분이 우주·철학과 자연 과학에 관련된 것이었다. 요약하건데 우리 문학 가운데 신전에 그 기원을 두지 않는 학문은 하나도 없으며, 이것은 모두 기록에 힘을 입고 있다.

그러나 지그프리트 쇼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기록의 참된 기원은 앞으로 오랫동안 혹은 영원토록 탐구해야 할 문제로 삼아야 할

것 같다.<sup>56</sup> 더우기 모든 학자가 단순히 추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단념을 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어떤 학문이 발전하는 것은 추정과 토론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이는 모든 것이 매우 불확실하고 말해야 할 사항이 많이 침묵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학자가 해결책을 구하지 못하고 궁지에 몰리는 것은 증거가 부족한 탓이므로 우리는 학자가 자연 과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를 깊이 고려해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외 다른 길이 모두 막혀 버렸을 때는 소홀히 다룬 방법을 시도해 보거나 아직 제기되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몇 가지 질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기록의 발전 과정에서 볼 수 있는 큰 간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림으로 기록하다가 자모를 사용하는 단계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는 본보기는 어디에 있는가?

2. 갑자기 상형 문자가 나타나고 그 후 썸어의 자모가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며, 이 두 가지는 각기 완전하게 발전되었다고 보는가? 우리는 이 두 가지 문자가 인간의 발명품 즉 천재의 소산이라고 받아들이며, 왜 또 한편으로는 진화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으면서도 문자가 서서히 오랜 기간 동안 발전하였다고 가정해야 할까?

3. 가장 오래 된 문자는 그 문자에 관한 가장 오래 된 전설과

병행하는 듯하다. 일반적으로 호기심을 가진 학자라면 적어도 이러한 전설에 대해 들어 보라고 제안하지 않을까? 알파벳의 기원은 페니키아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회랍의 전설이 참되다고 입증된 것을 부인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하여간 더 좋은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다른 전설을 진지한 태도로 왜 연구하지 않을까?

4. 고대인들은 왜 이구동성으로 자모를 포함하여 모든 문자의 근원이 하늘에서 나왔다고 말할까?

5. 최초의 기록은 왜 항상 신전에서만 발견되는가? 이러한 기록은 언제나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이유는 무엇인가?

6. 읽고 쓰는 일은 왜 항상 하늘의 뜻을 해석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는가?

7. 세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기록의 참된 특성에 기이하고 신비한 요소가 있으며 이것은 항상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끌어 준다. 그런데 그는 왜 부지불식간에 “자동적인” 과정을 거쳐 생긴 최초의 참된 기록에 “극히 평범한 사항만이 수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가? “기이하고 신비한 것”이 평범한 목적을 위해서 평범한 방법으로 발명될 수 있었을까?

8. 기록된 기호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는 신앙은 화살의 표시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는 최초의 기록이 인간과 짐승

57. Western Political Quarterly 2, (1943) pp. 329-39의 “The Arrow, the Hunter, and the State”에서 토론함. 임프르브먼트 이라 <sup>56</sup>(1953년)90-91, 123-7, 150-2, 191-5, 150, 266페이지.

58. 임프르브먼트 이라에서 인용함, <sup>58</sup>(1955년 5월) 307-8페이지.

55. S. Schott, Sieg uber Seth, p. 16.

56. A. Schott, in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und, Altertumskunde, Vol XII Hildesheim: G. Olms, (1964), p. 83.

에게 미친 기이한 힘이나 마력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 그 기록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가?<sup>57</sup>

9. 최초의 문자는 애굽의 1대 왕조의 건국과 더불어 완전히 발전된 것 같으며, 쇼트에 의하면 그 문자는 매우 잘 발전된 형태로 계속 진보한 듯하다. 통치와 권능에 필요불가결한 자료인 “왕의 비밀 문서”로서의 기록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10. 기록은 왜 항상 신비스럽고 소수의 그룹 내에서만이 보관될 수 있는 지식이 되며, 왕과 제사장의 독점물이 되고 있는가? 기록이 실제로 미치는 기이한 일즉 사상을 고취하고 보존하며 전달하는 일과 같은 놀라운 공적은 일반 백성의 관심 밖이다. 사업 기록, 개인 편지, 학교 과제등은 서기나 상인이 무한히 이를 남길 가치가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폐기하여 버리게 된다.<sup>58</sup> 그러면 서기와 상인이 문자를 발명하는 데 공헌하였다는 것을 왜 인정해 주어야 하는가?

이 열 가지 질문은 우리의 추측을 정당화 시켜 주기에 족해야 한다. 애굽인들이 그들의 기록에 그림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자모는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애굽인들도 원할 때는 그림을 폐기할 수 있었다며 때로는 그렇게 하기도 하였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인 것 같다.

우리가 다른 기호도 약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불편한 상형 문자와 음절 문자가 왜 그대로 남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알파벳을 혼란시키고 있다고 여겨지나?

나는 상형 문자(“성스러운 조각”)를 사용한 자들이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 싶다. 그 일례로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먼 훗날의 후손을 생각하여 이들에게 전한 대부분의 옛날 장례 기록을 들 수 있다. 표의 문자나 그림 없이도 당대의 유식한 애굽 기록자라면 그 내용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그림 없이 애굽어를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애굽의 기록이 여러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독특하다고 한다면 그 의도도 역시 다른 언어보다 더 널리 전달하려 한 점에서 독특하다. 하겠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가 많지만 이곳에서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애굽인은 결국 그들의 메시지가 이해되게 하기 위해서 좀더 많은 자료를 일부러 우리에게 주었을지도 모른다.

애굽어에서 유래되어 서양에서 모두 사용하게 된 셈어의 자모에 관하여 가장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경전 곧 오늘날 우리가 쓰는 경전을 기록하기 위해서만 창안된 것 같다는 점이다. 세드는 모세가 자모를 만든 창안자일지 모른다고 암시하고 있다. 그는 유대 작가인 유포레모스씨의 말을 인용하여 그러한 생각을 굳히고 있다. “아브라함이 자모를 에녹에게서 물려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유대의 전통에 관하여 잘 아는

권위자들은 압도적으로 자모의 창안자가 모세가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 기원전 2000-1500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가지 새로운 자모가 근동 지방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모두가 개인이 창안한 것으로 보인다.”<sup>59</sup> 개인이라고 해서 자모의 창안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없지 않은가? 일단 누구든지 자모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알면 그는 자기 나름대로 자모를 자유로이 창안해 낼 수 있다. 현대에도 유능한 자모가 창안된 예가 있다. 그러나 가나안인의 자모는 가장 오래된 것 같다. 이것은 “토라의 옛 기원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있다. 그것이 상형 문자만큼 오래된 것이거나 그보다 더 오래된 것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배경을 아주 면밀히 분석해 보면 경전은 무관심하게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다. 종교적 제약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고 자부심을 갖는 학자들이 성스러운 기록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의 경전에 실려 있는 기록으로 문자의 기원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을 때 우리가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오늘날 표준 경전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태초부터 인간에게 전해 온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 기록의 기원에 관하여 지금까지 발전된 가장 빠른 방법과 가장 훌륭한 단서는 바로 경전을 상고하는 것이다. ㉔

59. A. Jirku, in Zeitschrift der Deutschen Morgenländischen Gesellschaft 100: 520

60. H. Tur-Ainai, in Jewish Quarterly Review 41:296

61. Se. P. Mordeit, in Jewish Quarterly Review, 2:575

# 질의 응답

1974년 9월호

**이웃**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행하신 것처럼 구약성서의 말씀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하시는 데 특별한 능력을 보여 주셨습니다. 진실로 그는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않게”(마 7:29)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리”(마 5:17) 오지 않으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섯 살 때 구약성서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12세에 그는 유대의 율법 학자들과 경전에 대해 훌륭하게 토론하셨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복음을 전하실 때 구약성서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구약성서에 나오는 전례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짧은 복음서에는 구약성서에서 인용한 성구가 약 75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러한 유대 경전에 실린 말씀과 경전의 권능에

대한 그의 존경심을 나타내 보여 줍니다. 그는 그러한 경전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그가 그 경전의 대부분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같이 그는 모세의 오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구약성서의 처음 다섯 권은 율법서이므로 질문은 이 다섯 권에 근거를 두고 해결되었으며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구 중 4분의 1 가량 됩니다. 그는 종교 문학이라 할 수 있는 시편에서 큰 위안과 예언을 발견하고 시편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예언자에 관해서는 이사가야가 가장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사가야 선지자가 직접 인용된 횟수는 12번 이상이나 됩니다. 시편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사가야의 메시야에 대한 예언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지상 생활을 하시면서 이사가야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눅 4:21) 그는 부활하신 뒤 “모세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눅 24:27) 주셨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모세의 오경과 시편과 이사가야에 대해 강조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사해에서 족자를 발견한 것은 이러한 구약성서의 책들이 널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데 이들 경전은 캄란에 보존된 책들의 수많은 원고에 의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물론경에 다른 예언자들보다 이사가야가 많이 인용되어 있으며 이 책에서 구세주께서 “이사가야가 전한 말씀이 위대함이라”(니삼 23:1)고 강조하셨음을 알고 있는 말일성도들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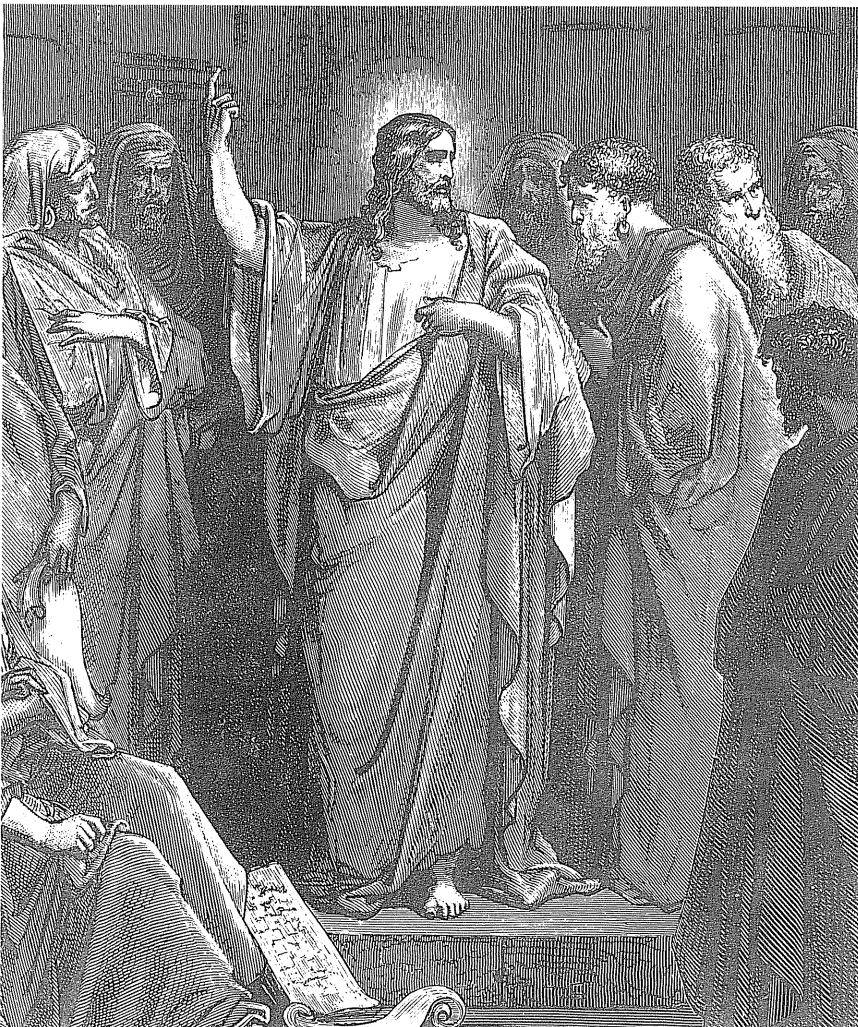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의 거의 3분의 1은 다니엘과 그외의 예언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예언에서 메시야, 개인의 의로움, 배도, 회복, 말일의 심판 등에 관한 예언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세주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이 구약성서에서 발견한 가르침과 영감과 예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브리감 영 대학교, 역사 및 고대 경전 교수.

구세주께서는 구약성서 중 어느 책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습니까?

대답 :

리차드 로이드 앤더슨





# 모세의 사명 속박에서 벗어남

시드니 비 스페리

Dale Kilbourn

1974년 9월호

**이웃** 모세는 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준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두드러진 인물이다. 그는 히브리인의 예언자와 선견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자로 히브리인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말일성도들도 역시 그같은 합당한 이유로 모세의 중대한 사명과 업적에 대해 감사한다.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은 훌륭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 그들의 부모 아므라판과 요게벳은 야콥의 세째 아들 레위의 후손이었다. (출 6:16, 18, 20) 따라서 모세와 아론은 레위인에 속한다. 그후 레위 지파의 족속은 특히 주님에게서 택함을 받고 신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민 8:5-26)

레위 지파는 제사 직분을 맡은 족속 즉 히브리인 가운데서 가장 영적인 일을 관장하는 족속으로 알려졌다. 모세의 생애는 세 시절 곧 (1) 애굽 시절, (2) 광야 시절 곧 영적인 준비를 위한 시절, (3)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입법자로서의 시절로 나눌 수 있다.

출애굽기 2장의 처음 15절에는 애굽 시절의 사건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모세는 그의 출생, 바로 왕의 딸과 바로 왕의 딸의 양자가 된 경위와 그리고, 자기가 애굽인 공사 감독을 살해한 일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한 자로서 그의 경험을 전연 설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쉬운 느낌을 갖게

해 준다. 아마도 그는 그 당시 애굽 최고의 교육과 외교 절차에 정통한 사람이었으리라 추측되고 있다. 우리가 유대인 사학자 조세프스의 저술을 믿고 이를 근거로 삼아 본다면 애굽인들은 모세가 어린 시절에 쌓은 위대한 지도력을 활용하는 데 태만하지 않았다.

모세는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신하기 전에 결혼하였을까? 이 질문은 흥미있는 것으로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 같다. 첫째, 청년이 결혼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이고 결혼하지 않는 것은 인종을 번성케 하지 않는 즉 종족을 멸하는 일을 방조하는 자로 생각되었다. 둘째, 기록에 있는 바와 같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민 12:1) 이 결혼은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 살던 동안에 행하여진 듯하다. 모세는 애굽인 공사 감독을 죽였기 때문에(출 2:11-12) 바로 왕의 분노를 피해 도망해야만 했다, 따라서 그는 현재의 아카바만 (출 2:15) 남단 가까이 있는 목장 지대인 미디안 땅 동남쪽으로 도망하였다. 미래의 입법자인 모세가 그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 영적인 준비를 시작한 곳이 바로 여기이다.

모세가 정의와 공명정대함을 귀중히 여겼다는 사실은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을 때 있었던 이야기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미디안의 딸 일곱 명이 아버지



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려고 왔을 때 목자들이 그들을 쫓아 내었으나 “모세는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물을) 먹여” (출 2:17) 주었다. 모세는 여자의 권리에 대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내세웠으므로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권속의 일원이 되었다. (출 2:18-22) 이곳에서 그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였으며, 그녀와의 사이에 두 아들 곧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갖게 되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는 자가 되었으며, 따라서 그는 적절한 목축 장소를 찾기 위해 광야의 이곳 저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드로는 모세의 생애와 업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었다. 구약성서에서는 그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으나 요셉 스미스를 통해 받은 계시에도 보면 이드로의 신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알려 주고 있다. 교리와 성약 84편에 의하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손에서 성신권을...” (교성 84:6) 받았다. 이드로가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으며 미디안의 교회를 관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당연히 믿을 수 있다. (출 18:1 참조, 영감역)

가장 위대한 예언자로 고대 히브리인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요셉 스미스를 인도해 주는 임무를 포함하여 주님으로부터 중대한 임무를 받았다.

이드로의 신권의 유래는 갈렙과 엘리후를 거쳐 멜기세덱과 노아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교성 84:7-16) 이드로가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하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미디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믿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구약성서에는 교회에 관하여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다. 그러나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덕택으로 우리는 이드로가 경전을 갖고 있었으며 모세가 이드로의 권속의 일원이 되었을 때 모세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었다는 사실은 비회원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나 그것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한 후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 사실은 몇 가지 흥미있는 질문을 제기해 준다. 언제 누가 미디안에 복음을 전파하였으며 그곳에 교회를 세웠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이들을 데려 갔을 때 미디안에 있는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모세는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든 교회(미디안 이외에 다른 곳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를 어떻게 관리하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볼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시대에 교회를 관리하고 아브라함에게서 십일조

를 받았음을 유의해야 한다. (창 14:20 참조) 물론 경에 보면(니일 17:35) 복음이 팔레스타인에 전파되었으나 대부분의 백성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미디안에 모세가 세운 교회 이외에도 다른 곳에 몇 개의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베풀어 준 영적인 교육은 대단히 광범위한 것임에 틀림없었다. 결국 이 영적인 교육으로 인해 주님은 직접 모세에게 지시를 주시고 그를 불러 성역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출 3:1)까지 이르렀던 것 같다. 여기서 주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애굽에 가서 속박에서 풀려날 수 있게 그의 백성을 준비시키라고 지시하셨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난 뒤 곧 주님은 모세를 “심히 높은 산으로 이끌고 가시어” 그와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을 주고 받으셨다. (모세서 1:1-2) 모세가 산에서 경험한 일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기이한 것이었다.

인간이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말씀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세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입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야렛의 동생도 포함된다. (이더 3:6-28 참조) 이들은 모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을 하실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놀라운 경적에 도달한 분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주님은 친히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를 “아들”(모세서 1:4)이라고 부르셨으며 그의 솜씨를 많이 보여 주실 것을 승낙하셨다. (모세서 1:4-5) 그는 모세에게 “너는 나의 독생자와 닮았다. 또 나의 독생자는 지금이나 장차에도 구세주가 될 자라...”(모세서 1:6)고도 말씀하셨다. 주님은 모세에게 이 세상과 “지음을 받고 있고 또 지음을 받은 모든 인간의 자녀를...” 보여 주셨다. 모세가 이 일을 “심히 기이하게 여겼”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모세서 1:8)

그후 주님은 모세에게서 얼마 동안 물러가셨으니 위대한 입법자인 모세는 연약하여 땅에 쓰러졌다.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인간이 아무 것도 아님을 알았다.

그는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지 못하여 영안으로 보았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말라 시들어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사탄을 대항하였다. 사탄은 모세가 그를 경배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루시퍼를 알았으며 그에게 독생자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명하였다.

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을 때 주님은 모세에게 그가 바다보다 강하여지며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구원할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모세서 1:25-26) 이후 영으로써 모세는 세상과 세상의 주민과 육지라 불리우는 많은 땅을 볼 수 있었다. (모세서 1:28-29) 이러한 것들이 모두 모세의 호기심을 일으켜 주었으므로 그는 주님께 설명해 주시도록 부탁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시켜 무수한 세계를 창조하셨으며 주님만이 이 세상과 그 주민을 헤아릴 수 있음을 알았다.

다음과 같이 중요한 말로 주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업의 참된 목적을 설명해 주셨다. “보라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 이것이 바로 나의 사업이요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경전의 어떤 성구보다도 심오한 의미를 내포한 이 성구는 주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을 설명해 준다.

주님은 모세의 간청을 받아들여(모세서 1:36) 이 세상과 그 주민에 관한 일을 설명하셨다. (모세서 1:40-41) 모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기록하라는 명을 받았다.

모세의 생애 중 세 번째 시절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입법자로서 활약한 시절이었다. 미디안 땅에서 영적인 경험을 많이 쌓아 훌륭히 준비된 모세는 이드로와 작별을 고하고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주님이 명하신 대로 애굽으로 떠났다. 도중에서 아론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모세를 만났다. 모세는 그의 대변자가 된 아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었다. 애굽에 도착한 직후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함께 모아 그들에게 백성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백성을 감동시켜 백성들은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출 4:10-31)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에서 건져 내어 해방시키기 위해 바로 왕을 설득하려고 행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애굽인의 장자가 죽게 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와 소를 몰고 떠날 것을 승낙하였으며 이후 애굽 군대가 홍해에 빠져 죽은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던”(출 14:31) 것이다.

한때 광야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자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이 오랫동안 애굽인과 이교도의 종교 의식을 보며 생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했었다. (금송아지에 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3장 22-9절에 설명되어 있음) 주님은 모세가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도록 명하셨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수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애굽기 19:5-6)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과 그의 다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종교의 기본 원리를 배웠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의심하지 않고 교회에 가입하였으나 대부분이 합당하지 않았음에 틀림없었다. (고전 10:1-8 ; 교성 84:24 참조) 적절한 때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의 높은 의식이 모세에 의해 계시로 주어졌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단합하여 모세가 바라던 대로 교회에 가입하였다면 세계사는 현저하게 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저들은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다.”(교성 84:24)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나서 주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데려 가셨으며 거룩한 신권인 대신권도 거두어 가셨다. 따라서 소신권만이 남게 되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 가도 좋다는 승낙을 주님으로부터 받지 못하였다. 그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다. 주님은 그를 승천시켜 주셨으며 이 사실은 그가 변형의 산에서 예언자 엘리야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으로 입증된다. (마태복음 17장 참조)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가진 권능의 열쇠를 세 사도에게 주셨으며, 이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살과 뼈로 된 육체를 가져야만 했다. 이 경우에서의 살과 뼈로 된 육체란 승천한 몸을 의미하였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58페이지)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와 함께 있었는데(교성) 그들은 눈 깜박하는 사이에 승천된 상태에서 부활의 상태로 변하였을 것이다.

모세는 18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신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이 경륜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방문을 하셨다. 교리와 성약 110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모세가 우리 앞에 나타나 세계의 사망에서 이스라엘을 집합시키며 북방 나라에서 열지파를 인도하여 내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시더라.”

우리는 모세가 이 경륜의 시대와 과거의 경륜의 시대에서 이룩한 업적을 살펴 볼 때 다음 성구를 상기하게 된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신 34:10) ㉔

스페리 박사는 브리감 영 대학교 신학 연구원 대학 부 책임자를 역임하였음. 현재 브리감 영 대학교 제 8 스테이크 축복사임.

# 구약성서

1975-76년도 구약성서 공과 과정(주일학교 복음 교리반)독서 과제

공과	제목	독서 과제
1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부름을 받음.	출 1-6장 주의 : 3, 4장
2	노예의 굴레를 벗어남	출 7-12장
3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출 13-16장
4	모세와 그의 성품	출 16-17장
5	교회와 가정의 질서	출 18-19장
6	십계명	출 20-24장, 신 5장
7	안식일 : 성약의 표적	출 25-31장
8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하나님의 성약	출 32-40장
9	레위기 : 위대한 몽학선생	레 15-26장
10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을 준비시켜 주심	민 1-15장
11	발람의 멸망	민 22-36장, 주의 : 22-24장
12	순종을 통해 발전함	신 1 : 1-4 : 43
13	사랑은 율법을 충족케 함	신 4 : 44-28 : 68
14	건강에 관한 주님의 율법	신 14장, 레 10, 11장
15	성약의 백성	신 29-34장
16	예리고의 멸망	수 1-9장
17	세겔에서 맺은 성약	주 10-12, 24장
18	삼손,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	삿 1-16장
19	룻과 보아스 : 이기심 없는 사랑의 본보기	룻 1-4장
20	사무엘의 부름	삼상 1-3장
21	성스러운 것을 경솔히	삼상 4-7장

다루지 말라		
22	마음을 살피 보시는 주님	삼상 16장
23	다윗과 사울 : 두 인간의 생활 방식과 그들의 최후	삼상 16-31장
24	다윗과 요나단 : 참된 우정의 가치	삼상 18-20, 23장
25	유혹을 대항함	삼하 1-12장
26	신전 : 이스라엘의 예배의 대상	백성 열상 1-11장
27	디셉인 엘리야	열상 16-22장, 열하 2-2장
28	욥 : 그의 고통과 신앙	욥기
29	부활의 약속	욥 14 : 14 : 19 : 25-27
30	주는 나의 빛	시 2, 8, 23, 27, 73, 84, 118, 121, 145-50편
31	하나님의 은사인 지혜	잠 1-4, 6, 8-10, 16장
32	영원한 가치를 구함	전도서
33	주님에게서 배운 요나	요나서
34	요엘과 미가의 예언	요엘서, 미가서
35	이사야와 메시아	사 6, 7, 9, 11, 40, 52, 53장
36	이사야와 말일	사 7-5, 10, 11, 29, 49, 52장 : 65 : 17-25
37	사도의 직분의 가치	렘 1-20장
38	새롭고 영원한 성약	렘 21-45장
39	내게로 나아와 생활하라	에스겔서
40	파수꾼의 책임	겔 3 : 17-21 : 33-48장
41	충실한 다니엘	단 1-12장
42	순종을 통해 얻는 합과 힘	에스라서, 느헤미아서
43	에스더와 가족의 긍정적인 반응	에스더 1-10장
44	제시의 창	말라기

이외에 1975-76년도 회기 동안 구약성서에 대해 깊이 생각한다. 圖

# 올손 에프 휘트니 장로

## 약 력

올손 휘트니 장로는 1855년 7월 1일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호러스 킴블 휘트니와 헬렌 마 킴블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솔트레이크의 학교와 메저렛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후에는 유타 대학교 총장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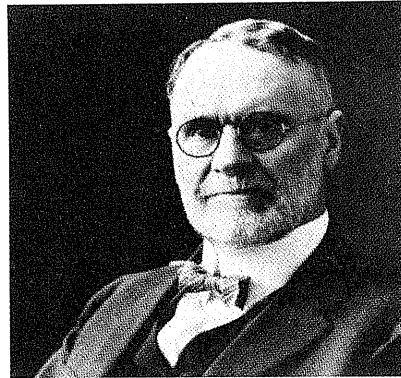
그는 세 번에 걸쳐 선교 사업을 했으며 세 번째 선교 사업 기간에는 유럽 선교부를 관리하였다.

휘트니 장로는 28년 동안 솔트레이크시티의 제18와드 감독으로 봉사했으며 감독으로 있으면서 그는 사도의 부름을 받았다.

1906년 4월 9일에 조셉 에프스미스 대관장으로부터 사도로 성임되었으며, 그의 나이 50세 때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성임되었다. 그는 유타주 로간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히버 시 킴블과 로렌조스 노우의 전기를 썼다.

그의 문학 작품 중에 뛰어난 것으로 유타주의 역사가 있다. 그는 뛰어난 연사이며 저명한 저술가였다. 휘트니 장로는 자신이 쓴 시를 읽어 청중을 사로잡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청년 시절에는 연극에 크게 관심을 가져 "흠 드라 마틱 캄파니"란 극단의 연출부에서 크게 활약했다. 성악에도 재질을 가졌으며 정치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는 1931년 5월 16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다음에 나오는 글은 휘트니 장로의 회고록에서 발췌한 것이다.

\* 레온 알 하트손 편 사도의 생애에 관한 특별한 이야기, 메저렛 출판사 1973년, 저자의 승인을 얻어 연재함.

**그것은 전적으로 그대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때 한 기이한 시현이 나타났으며 지극히 높은 곳으로부터 훈계가 내려졌다. 그것은 내가 도저히 그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내가 펜실바니아주 랑카스터군에 있는 조그만 골롬비아 마을에서 잠자리에 들었을 때 꿈이며 꿈에 본 시현이었다. 나는 구세주의 혹심한 고통을 목격하는 증인으로 갯세마네 동산에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마치 보통 사람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구세주를 보았다. 나는 나무 뒤에 서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나의 오른 편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 오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세 사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이르고 나서 저쪽으로 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은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눈물이 내게 향한 그의 얼굴에 흘러내렸다. 나는 그 광경을 보고 크게 감동하여 순수한 연민의 정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렸다. 나의 온 마음은 그에게 쏟렸다. 나는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오직 그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뿐이었다.

이윽고 예수님은 일어나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그곳으로 걸어왔다. 그러나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예수님은 그들을 조용히 흔들어 깨우고 조금도 노여워 하지 않고 부드러운 소리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꾸짖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그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만인을 위하여 그의 영혼이 찢기우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그들 사도는 한 시간도 그와 함께 깨어 있지 못하였다.

주님은 다시 방금 기도하던 곳으로 가 전과 같은 기도를 하고 돌아와 보니 세 사도가 다시 잠이 들어 있었다. 주님은 그들을 다

시 깨워 혼계를 하고 또 그곳으로 돌아가 기도를 했다. 이러한 일이 세 번씩 반복되는 동안 나는 이미 주님의 모습 즉 얼굴과 체격과 동작을 익히 알게 되었다. 주님은 몇몇 화가들이 그린 것처럼 유약하지 않고 웅출한 키에 당당한 풍채를 가지신 분이였다. 그러나 옛날도 지금도 하나님으신 그분은 어린 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장소는 그곳인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일이 있는 뒤였다. 구세주께서는 세 사도와 함께 나의 왼편에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려는 참이었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나무 위에서 뛰쳐나와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의 무릎을 겨앉았다. 그리고 함께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주님께서 허리를 굽혀 나를 일으켜 세워 안아 주던 그 친절하고 온유하던 모습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생생하고 현실과 같은 일이었다. 나는 그의 팔에 안겨 그의 체온을 느꼈다. 주님은 나를 안은 채 지극히 부드러운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들은 나와 함께 갈 수 있으나 너는 여기에 남아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꼭 붙든 채 나보다 키가 큰 그를 올려다 보면서 간곡히 애걸했다. “그러면 다음에 내가 당신께로 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주님은 이 말에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것은 너에게 달렸지” 나는 흐느끼면서 잠에서 깨어보니 아침이었다.

나의 꿈 이야기를 들은 마서 장로는 “그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이요”라고 말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꿈이 가르쳐 주는 교훈을 분명히 알았다. 나는 사도가 된다는 것도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는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며 또 그러한 직분이 내게 맡겨진 일도 없었다. 그 잠든 사도들이 나를 뜻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나는 알았다. 나는 어떤 일을 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임명을 받고도 다른 일을 하는 사람처럼 나는 나의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꿈을 꾸고 난 그 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었다.

###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어느날 아침이었다. 나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사설을 쓰려고 했는데 글의 서두가 잡히지 않아 하루 종일 그렇게 씨름하였으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쓸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펜을 팽개치고 울화가 치밀어 울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 때 영이 나에게 “기도를 하시오”라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마치 내 귀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매일 다섯 번씩 기도했다. 아침 낮 밤으로 은밀히 기도했으며, 가족과 함께 아침과 저녁 식사 때에는 소리를 내어 기도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는 성급하게 물었다. 나의 마음은 슬픔에 잠겼으며 용기도 잃고 있었다.

“바로 지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간구하십시오”라고 영이 속삭였다.

나는 그 진의를 알아차렸다.

평상시와는 다른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흐느끼며 겨우 몇 마디를 말했을 뿐이었다. 나는 열 지파가 다시 오도록 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으며 새 예루살렘의 건설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사를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나는 일어나 자리에 앉아 다시 펜을 들었다. 나의 마음이 완전히 맑게 트여 수월하게 글을 쓸 수가 있었다. 내가 필요로 한 모든 것이 글을 쓰는 대로 머릿속에서부터 이어져 나왔다. 적절한 생각과 말이 모두 떠올랐다. 잠시 사이에 나는 더없이 만족한 글을 완성하게 되었다. 나는 그 글을 선교부장님에게 읽어 드렸으며 선교부장님은 한 자도 수정하지 않고 그 글을 그대로 실도록 허락했다.

이 일은 나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이미 내가 알고 있었지만 더욱 그 중요성을 강조해야 했던 것을 나에게 일깨워 준 것이었다. 기도는 단순한 말이나 타성에 의해 반복되는 말이 아니다. 기도는 “영혼의 간절한 소망”이다. 기도는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러한 것이다.

### “어느 아이인지는 말하지 않았오”

또 한 차례의 환란이 나와 가족에게 닥쳤다. 런던 교외로 처음 소풍을 갔던 바로 그 날 나의 사내 아기 히버 킵블 휘트니가 유타주의 먼 시골에 있는 그의 할아버지 스무트의 집에서 저 세상으로 갔다. 이 아이는 내가 영국으로 떠난 지 7개월 21일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앞으로도 그를 볼 수가 없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비보를 리버풀에 있는 존 헨리 스미스 선교부장이 나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에서 알았다. 그는 데저렛 뉴스에서 나의 아기의 사망 기사를 읽었던 것이었다. 조금 뒤에 프로보에 사는 장인으로부터 온 편지에서 그 아이가 죽은 것을 확인했다. 그 때 아내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장모가 돌아가셨으며 그래서 태어난 이 아기가 그녀의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가 되리라는 희망을 가졌었는데 그 희망조차 깨어지게 되어 나는 더욱 더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나는 슬픈 마음을 겨우 달래고 비탄에 잠겨 있을 아내에게 사랑과 위로의 편지를 띄웠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로 편지를 끝냈다.

“당신의 편지를 애타게 기다리면서도 또 다른 슬픈 소식을 받을까 두려워 하고 있으.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원하오. 참으로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오.

“스미스 선교부장님이 맨 먼저 나에게 그 이야기를 알려 주었으. 그러나 그 아이가 어느 아이인지 말하지 않았으. 그래 나는 몇 시간 동안 그 아이가 누구일까 하고 그 경황 중에도 생각했었으. 아기가 몹시 앓고 있다는 소식을 당신에게서 전해 들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아기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

선교부장님은 나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말씀하셨으. 선교부장님은 나에게 축복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으. 나는 선교부장님의 말씀대로 할까 하오. 왜냐 하면 그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대변자이시기 때문이오. 당신 생각은 어떻소? 5월에 출발하는 이민단과 함께 떠나기는 지금 너무 늦었으니 6월에 출발할

까 하오. 만일 당신이 응락하고 주님이 다르게 지시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곧 당신에게로 가겠오.”

### “타오르는 불길 속”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새로 알게 된 사람 중에 훌륭한 한 부인이 있었다. 그 부인은 남북전쟁 당시에 북군의 장교로 참전하여 전사한 연합군 장교의 미망이었다. 그 부인은 죽은 남편을 사랑했으며 남편에 대한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내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와 영원한 결혼에 대해 설명하고 말일성도들이 신전을 짓고 안에서 의식을 갖는 목적 가운데 그러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 부인은 나의 말에 큰 관심을 갖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제가 만일 말일성도가 된다면 남편을 위해 그와 같은 의식을 행할 수 있으며 다음 세상에서 제가 그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이 질문에 나는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렇게 아름답고 숭고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라도 침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부인을 확신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인께서 주님께 간구한다면 주님은 부인을 확신시켜 주실 수 있으며 또한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부인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했으며 자신의 말대로 의심없이 그렇게 행했다. 그 후 얼마되지 아니하여 나는 그 부인으로부터 글을 받았는데 자기는 구하던

간증을 얻어 침례를 받겠노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즉시 침례 의식을 집행할 수 있도록 몇 사람과 함께 모시에 이리호 연안의 모처에서 부인을 만나 침례주겠다고 답장을 보냈다. 우리 일행이 이리호의 약속된 장소로 출발하려 했을 때 그 부인으로부터 또 한 통의 편지가 왔다. “저는 제가 것처럼 나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임을 미처 모르고 있었읍니다. 나는 침례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용기가 있다고 제 자신을 생각해 왔으나 그렇지 못해요. 만일 제가 ‘몰몬’이 된다면 친구들이 모두 저에게서 떠나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사회적 저의 지위도 잃게 되고 제 이름은 사악한 이름으로 불리워 버릴 것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희생을 감당할 수가 없읍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리가 진실하며 선생님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믿고 있읍니다.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읍니다”라는 내용이였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슬픔과 동정이 엇갈리는 그런 심정이 되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와 얼마나 같은가 하고 나는 생각했다. 베드로는 주님이 거룩하신 이 임을 알았으며 또 그를 수호하겠다고 하였지만 그의 맹세를 어기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다. 이 선량한 부인도 선량한 이스라엘의 한 자녀로 진리를 믿어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라도 침례를 받겠다고 했지만 시험이 닥쳐올 때 그녀는 강하지 못하였다. 회개하여 자신을 다시 되찾은 베드로처럼 그 부인도 다시 마음을 돌려 자신의 과오를 고칠 것을 우리는 모두 바라고 있다.



# 노르웨이 의 친구

일리너 샬



1974년 9월호



서기 800년 경 바이킹족 뱃사람들은 노르웨이의 깊은 협만의 푸른 바다를 배를 타고 나아갔다. 오늘날도 노르웨이의 어부들은 그 바다를 향해하여 나아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한밤의 태양의 나라로 알려진 이 나라의 최북단은 5월부터 7월까지 거의 매일 24시간이 대낮같이 밝다. 이때가 되면 이 나라의 최남단도 해뜨기 전의 여명과 해진 후의 황혼 빛이 오랜 시간 동안 남아 있어 완전히 어두워지는 밤은 없다. 그러나 겨울이 되면 해는 불과 한낮의 몇 시간 밖에 떠 있지 않는다.

이 바이킹족의 나라는 국토가 길게 뻗어 있고 산이 많으며 경치가 아름답다. 이 나라는 남쪽의 비교적 따뜻한 북해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북극권에까지 길게 뻗어 있다.

이 나라는 겨울이 길고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옥의 운동을 즐긴다. 국기라고 할 수 있는 스키는 이미 오랜 옛적부터 시작된 운동이다. 현재 거의 모든 도시에 스키 점프장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많은 사람이 원거리 스키 여행을 즐긴다.

이외에 동계 운동으로 스케이팅이 인기가 있다. 11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하며 이 경기는 밴디라고도 부른다. 축구는 하계 운동으로 인기가 높다. 해안 지방에는 돛단배 놀이를 많이 하고 있으며 수많은 호수와 강은 낚시꾼의 마음을 끌고 있다. 어떤 도시에는 보우트(노를 젓는 배) 클럽이 있다.

어린이들은 "퀴리 자르기"란 놀이를 한다. 기수 번호의 어린이들이 서로 손을 잡아 원을 만들어 놀이를 한다. 한 어린이가 원 가운데 서 있고 다른 어린이들은 원 주위를 짱총짱총 뛰어 돌며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의 가사는 "너는 내 짝을 찾으렴. 나는 내 짝을 찾을게"로 끝나는데 이 노

성도의 빛 1974년 9월호

래가 끝나면 원은 없어지고 원 가운데 서 있던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어린이가 옆의 아무 어린이나 잡아 서로 자기 짝으로 삼는다. 이때 짝을 찾지 못한 어린이는 원의 한 가운데로 가서 다시 놀이가 시작된다.

작곡자 에드바르트 그리그(1843-1907)와 극작가 헨리크 입센(1826-1906)과 탐험가 로알 아문센(1872-1928)이 모두 노르웨이 사람이다. 5명의 동료와 함께 남 태평양의 4300마일을 콘티키라는 뗏목을 타고 횡단한 도르 헤이어달도 이 나라 사람이다. 헤이어달의 뗏목 항해로 폴리네시아 군도는 옛날에 페루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 곳으로 건너와 정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는 이 나라의 남동부 저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저지에는 강이 많아 통나무를 이 강에 띄워 제재소로 보내며 이 강의 폭포를 이용하여 수력 전기를 일으킨다.

서기 998년에 건설된 도시 트론드하임은 한때 노르웨이의 수도였다. 이 도시는 중앙 트론드하임 저지에 있으며 이 저지에는 몇 개의 넓고 평평한 계곡이 있다. 오늘날 이곳은 산업과 무역의 중심지이다. 이곳에는 농토도 많이 있다. 시인 사이먼 오 울프(1796-1859)는 다음과 같은 시를 썼다. '태고의 절벽으로 울을 친 노르웨이여, 여름 계곡과 겨울을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나의 조국이며, 지구가 뒤흔들릴지라도 폭풍은 네 산을 무너뜨리지 못하리.' 〇

# 소년과 새 한마리

974년9월호

**연** 신문 배달 소년은 급히 타고 달리던 자전거의 손잡이를 옆으로 돌렸다. 길 위에 앉아 있던 새가 하마터면 자전거 바퀴에 짓눌릴 뻔했다.

“작은 새야, 저기는 배가 잠잘 데가 아니야.” 이 소년은 고개를 돌려 아직도 그곳에 앉아 있는 새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조금 후에 이 소년은 신문 배달을 전부 마치고 텅 빈 주머니만 자전거에 실은 채 다시 그 길로 돌아오며 혹시 아까 그 새가 근처의 어디에 앉아 있는지 주위를 둘러 보았다.

이 소년은 처음 있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새를 보고는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멈췄다. 이 소년은 어찌 할 바를 몰라 당황하면서 그 새를 내려다 보았다. 새도 구슬 같은 눈으로 소년을 올려다 보았으나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았다.

“작은 새야, 어디 아픈 데가 있니?”

이 소년은 다시 말을 건넸다.

소년은 자전거에서 내려 한 발자국씩 가만히 새 옆으로 다가 갔다. 새는 갑자기 날아 가려고 했다. 그러나 한번 제자리에서 뿔 뿐이었다.

소년은 한두 걸음 더 가까이 가서 허리를 굽혀 새를 내려다 보았다. “왜 어디가 아프니? 다른 새들은 벌써 일어나 먹이를 찾고 있는데 너는 여기서 앉아만 있으며 어떻게 되니?” 소년이 물었다.

그는 이렇게 새에게 말하며 손을 내밀어 새를 가만히 잡으려 하였다. 그러자 새는 깜짝 놀라 위로 날아 올랐지만 겨우 소년의 머리 높이까지 날으고는 다시 땅에 내려 앉았다.

소년은 쉽게 손을 뺐어 새를 집어 올릴 수가 있었다.

새는 사납게 소년의 손을 쪼아 대기 시작했다.

“아얏!” 소년은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그는 손을 들어 새를 던져 버리려 했다. 그러나 소년은 순간 마음을 고쳐먹고 아픔을 참고 새가 안심하고 조용해질 때까지 새에게 이렇게 타일렀다. “파랑새야, 무서워하지 마, 난 무서운 사람이 아니야.” “어디가 아프니? 깃에 피가 나지 않은 걸 보니 고양이에게 물렸거나 총에 맞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 소년은 이 작은 새를 내려다 보며 이렇게 물었다.

소년은 새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새를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네 날개와 다리를 살펴 보아 줄게, 조심스럽게 말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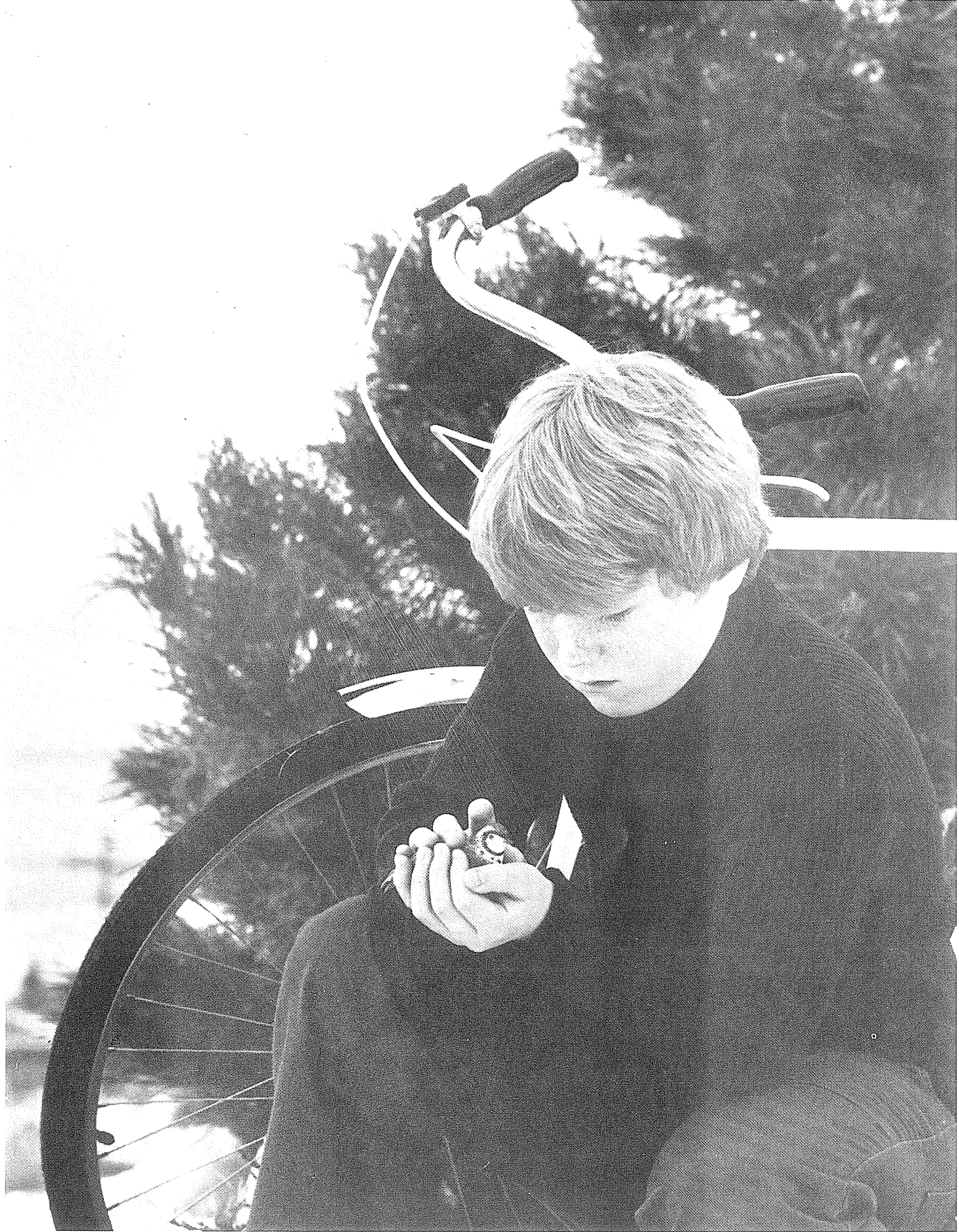
그는 부드럽게 새의 날개를 펴 보고 가느다란 두 다리도 폈다가 굽혀 보면서 계속해서 조용한 목소리로 새를 달래었다.

이 작은 새는 이제 소년의 손에서 빠져 나올려고 하지 않았다. 너무 힘이 없거나 아니면 이 소년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안해. 어디 뼈가 다친 것도 아니군. 너처럼 작은 새는 몸 속보다 몸 밖에 상처가 있으면 치료해 주기가 더 쉬운데.” 소년이 말했다.

소년은 새의 아래, 위를 보고 옆도 보았으며 다시 부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자세히 살펴 보았다. 그러나 전혀 다친 데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소년은 손가락 하나로 새의 목에서 아래로 배 있는 데까지 훑어 내려 갔다.





“이봐, 이제 보니 통 먹지를 않았구나. 왜 그렇지?” 소년은 애처로운 눈길로 이 작은 새를 내려다 보며 머리를 가로 저었다. “아주 위험한 상태에까지 가지 않았는지 걱정이야.”

소년과 새는 서로 쳐다 보았다. 그들은 시선을 통해 마음과 마음에 서로 무엇인가 통하는 것을 느끼는 듯했다. 이 작은 새는 소년의 손에 조용히 누워 소년을 응시하며 소년의 부드러운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 때 새의 입에서 거품이 조금 나왔다. 소년은 이것을 보고 낮은 신음 소리를 냈다.

“저런 네가 그만 독을 먹었구나.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지. 우리 집 개도 그만 독을 먹고는...”

소년은 말을 멈췄다. 그는 눈을 꼭 감았다. 그리고 억지로 침을 삼켰다. 그리고는 다시 이 작은 새를 내려다 보고 말을 이었다. “아마 너는 메이저를 만날지 모르겠구나. 메이저는 정말 귀염둥이였지. 온 몸이 갈색 털로 덮이고 크기가 중간 정도였지. 메이저는 새에게 친절했단다. 네게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소년은 그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새와 함께 앉은 자리에서 기다렸다. 소년은 손가락으로 새의 부드러운 깃털을 어루만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새를 위로 하였다.

이 작은 새는 이따금씩 눈을 감고 쉬다가는 갑자기

눈을 떠 주위를 두리번 거리다가 소년을 쳐다 보았다. 새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새와 소년은 그들이 서로 이해하는 말을 주고 받는 듯했다.

그러다가 조금 후 이 새는 작은 몸을 떨었다. 그리고는 소년을 한번 더 쳐다 보았다. “이제 괜찮아, 그럼 안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새는 소년의 손에서 눈을 감고 잠이 들었다. 새는 조용히 생명을 잃어 가는데 차갑고 어두운 하늘은 찬란한 여명으로 밝아 오고 있었다.

“안녕!” 소년은 부드럽고 따뜻한 새의 깃털을 뺨에 대고는 속삭였다. “네가 죽어야 하다니 정말 안됐어.” 소년은 새의 조그만 머리 위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 주었다.

소년은 짧은 나무 토막을 주워 들고 나무 아래에서 흙을 팠다. 움푹 파인 곳에 부드러운 풀을 깔고 그 위에 이 작은 새를 뉘었다. 그리고 다시 파아란 나무 잎으로 새를 덮고 그 위에 흙을 얹었다. 그 무덤 속에 작은 꽃 몇 송이를 함께 묻었다.

소년은 이 작은 새를 묻으며 조그만 소리로 작별의 노래를 불렀다.

안녕! 친구야. 편히 쉬어라.

이제 너는 천국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

언제일지 난 모르나 언젠가 나도 가리.

그 때엔 너와 메이저와 내가 함께 즐겁게 놀자꾸나.



바니와 버티가 덮고 있는 이  
불의 조각에서 그들의 잠옷과  
같은 무늬의 조각 8개를 찾아  
보세요.

앤 스텐시



# 심심풀이



## 점 잇기

캐롤 코너

멕시코와 미국의 사막에 사는 새입니다. 이 새의 이름은 새의 습관에서 따온 것입니다. 1번 점에서부터 33번 점까지 차례로 이어 가면 이 새의 모습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 새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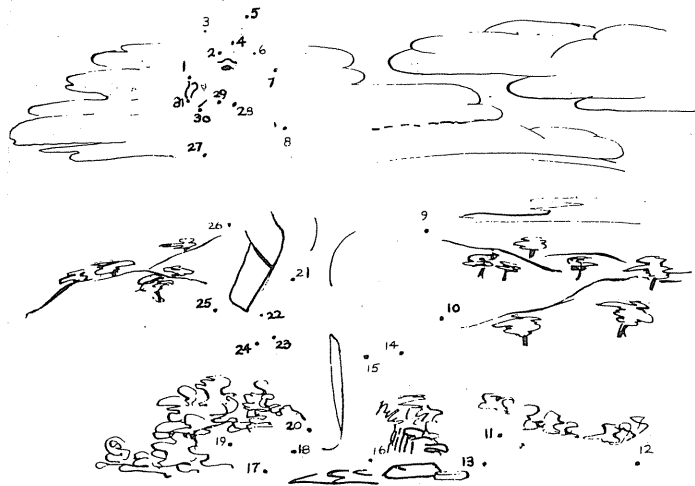


---

## 친구를 숙여보세요.

친구들은 여러분의 머리에 구멍이라도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친구에게 4인치 평방의 종이에 있는 구멍으로 머리를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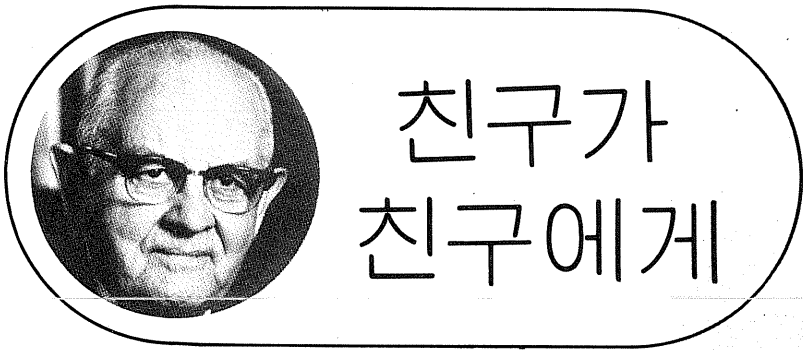
방법: 이 사각형대로 종이를 잘라냅니다. 그런 다음에 백선을 따라 가며 가위로 자릅니다.



## 점 잇기

캐롤 코너

1부터 31번 점까지 선을 그어 이으십시오. 그러면 한 동물이 그림이 되는데 이 동물은 호주에 사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친구가 친구에게

## 비극인가? 운명인가?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

974년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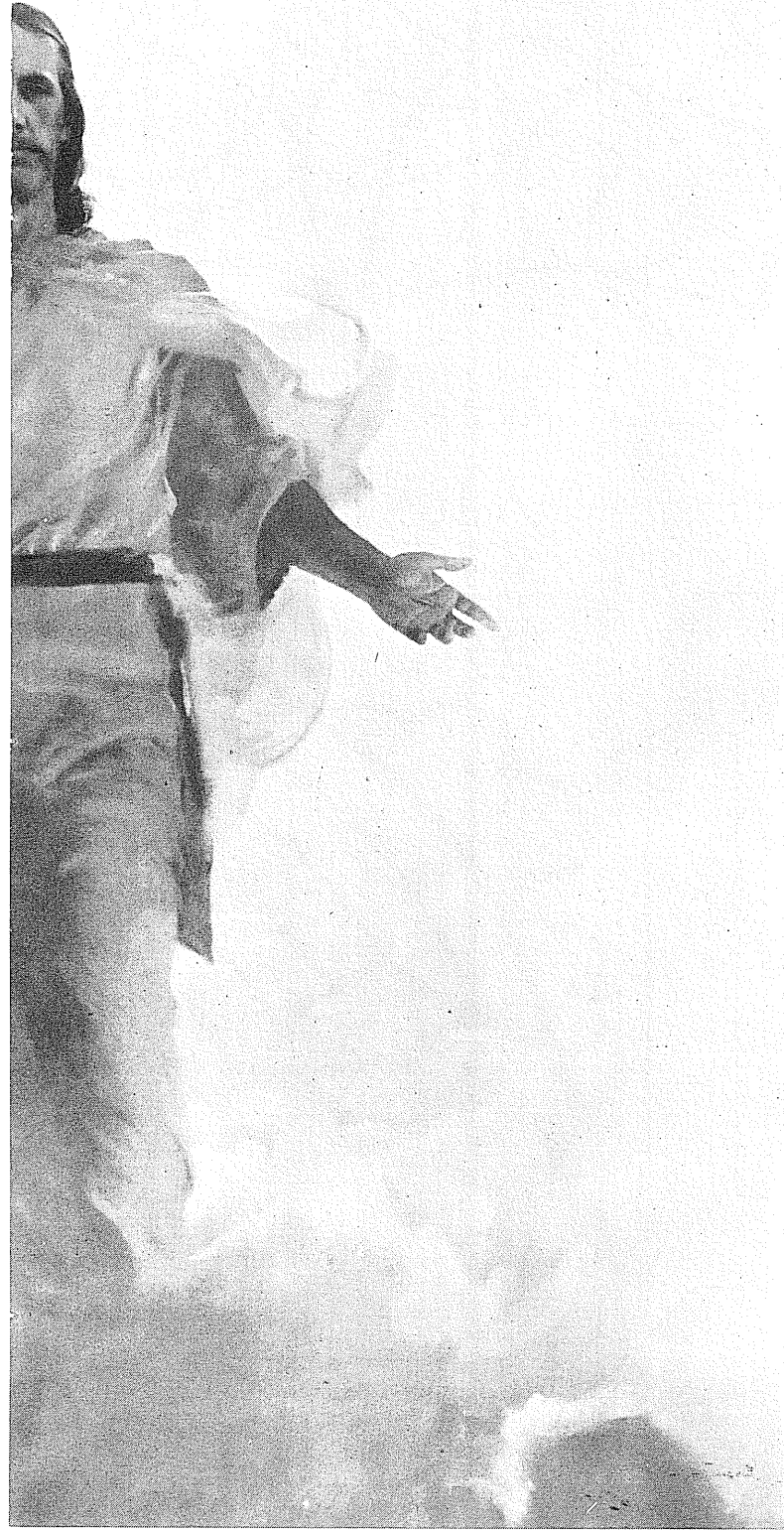
**생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육신을 얻고 경험을 쌓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올 것과 세상에서 기쁨과 슬픔, 평안과 고통, 위로와 고난, 건강과 질병, 그리고 성공과 실망을 맛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얼마 동안 세상을 살다가 죽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하루 또는 1년 밖에 계속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세상에 올 때를 고대하고 있었읍니다. 우리는 때가 이르면 기꺼이 생명을 얻으려 했읍니다. 거기에는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그리고 분별없는 요구도 없었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 갈 수도 있으며 어리석게도 생명을 단축하거나 잃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부주의, 육체의 남용, 쓸데 없는 모험 또는 위험이나 사고나 질병으로 죽어야 할 때보다 훨씬 이전에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병자를 고쳐 주시지는 않습





니다. 주님은 언제나 고통이나 비탄에서 구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어떤 목적을 가진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고통을 통해서 인내와 극기를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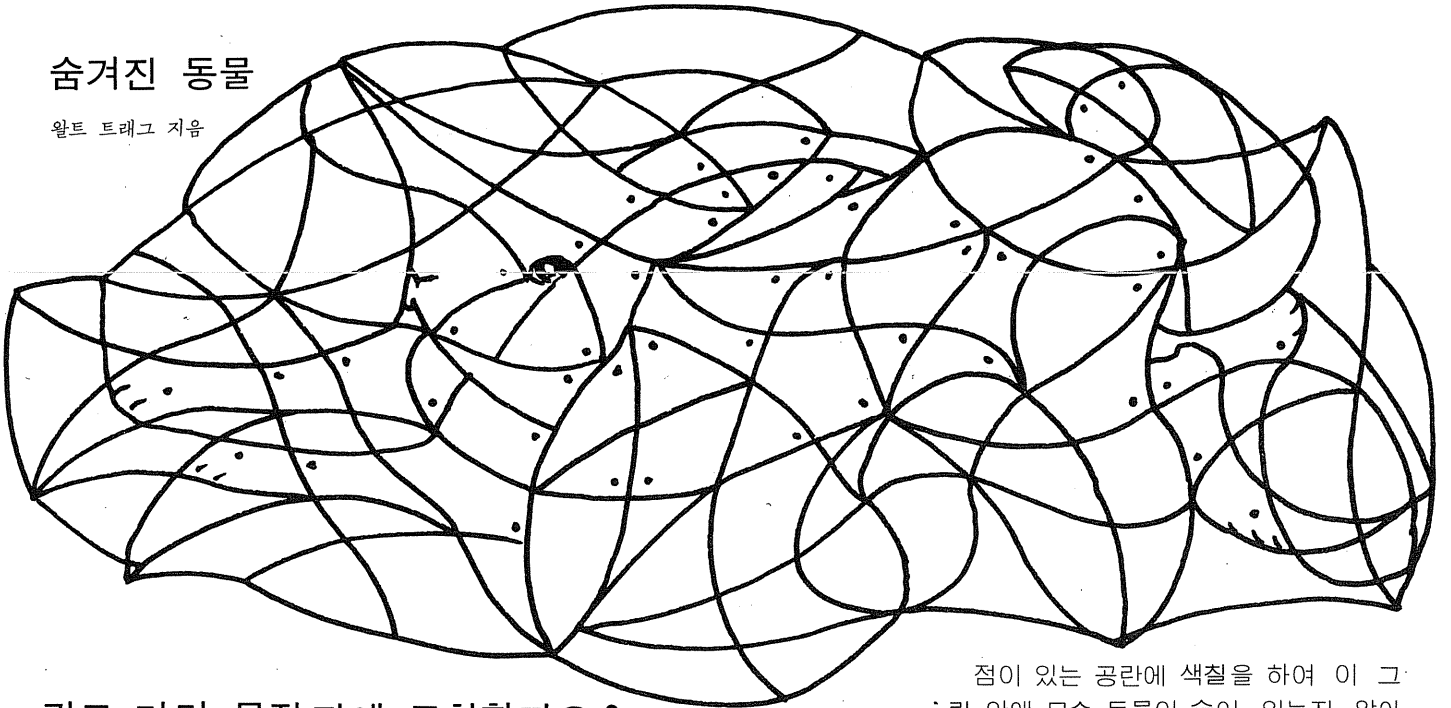
죄를 짓지 않는 한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배웁니다. 죽음은 생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죽음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변화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받은 고통은 그의 가르침의 일부였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부활과 대속의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기 때문이라는 울고 싶도록 기쁩니다.

비극이 닥쳤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좌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삶에 온갖 어려움이 따르다 하더라도 삶은 역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릴 준비를 하는 동안에 지식과 지혜를 넓히고 신앙을 키우며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卍

# 숨겨진 동물

왈트 트래그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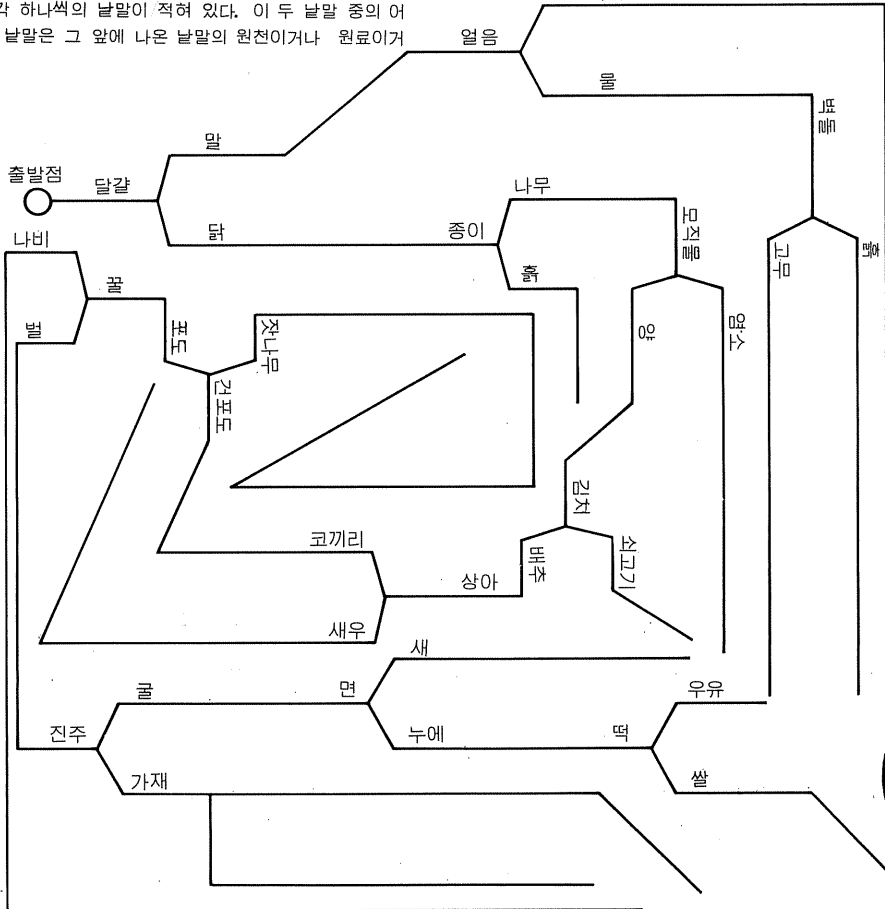


점이 있는 공간에 색칠을 하여 이 그림 안에 무슨 동물이 숨어 있는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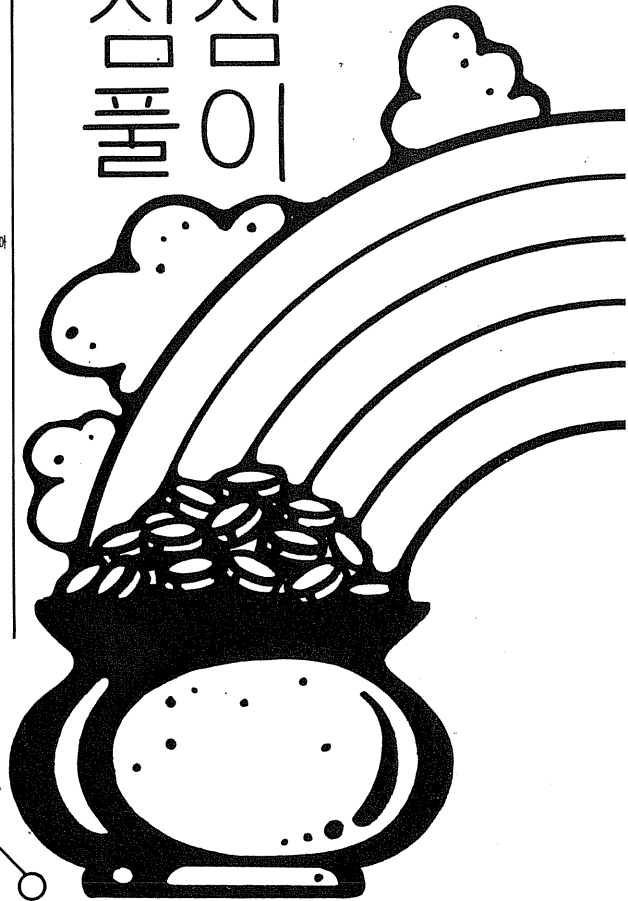
# 어느 길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할까요?

다음 그림의 출발점에서 황금항아리가 있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마다 낱말이 하나씩 나와 있고 그 낱말이 있는 길을 계속 따라 가면 두 길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길 각각 하나씩의 낱말이 적혀 있다. 이 두 낱말 중의 어떤 낱말은 그 앞에 나온 낱말의 원천이거나 원료가거

나 또는 자료이다. 그러한 원천이나 원료나 자료가 되는 낱말이 있는 길을 따라 가면 황금 항아리가 있는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 **목화**



# 심심 벨이



황금 항아리

제이 엠 수이카 지음

# 질의 응답

이곳에 소개되는 대답은 '참고로 쓰여지는 것이며 교회의 교리가 아님을 밝혀둔다.

“배도가 있는 뒤 다시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까?”

1974년 9월호



인간의 구원을 위해 배도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구세주가 세운 교회와 사도들이 그대로 세상에 있었다면 주님에게서 받은 복음의 구원 의식을 집행할 합당한 권능이 있었으므로 다시 교회를 회복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도가 있어 신권이나 복음의 구원 의식을 집행할 성스러운 권능이 지상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권능을 다시 지상에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은 회복뿐이었습니다.

배도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지상에 교회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교회가 없었고 복음의 구원 의식을 집행할 권능을 소유한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경전에 보면 배도가 일어나 예수님이 세운 초대 교회가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자 요한이 밧모섬으로 추방되었을 때 주님의 천사는 “이리로 올라 오라 이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계 4:1)고 말했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사탄이 권세를 받아 성도들(그리스도 교회의 회원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계 13:7) 그것은 분명히 배도가 일어나 구세주가 세운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 천사는 요한에게 공중을 날오는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계 14:6) 분명히 영원한 복음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또 이같이 말했습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 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성도의 벗 1974년 9월호

경배하라 하더라”(계 14:7)

배도에 대한 또 다른 증거로 요셉 스미스가 받은 시현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현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 각기 독립된 영광된 두 인격체임을 알 수 있으나 일반 기독교 세계에서는 육신도 없고 감정도 없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눈이 없어 볼 수도 없으며, 귀가 없어 들을 수도 없으며, 입이 없어 말을 할 수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복음의 진리보다 인간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때 그들이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열국 중에 흩어질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신 4:26-27 참조). 또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신 4:28)

요셉 스미스가 영광스러운 시현을 보았을 당시의 기독교 세계는 바로 이와 같은 신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말일에 하나님을 찾는다면(모세는 특히 말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를 찾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 4:29-30 참조)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하나님을 찾았으며, 그리하여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계 14:7)라고 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세주의 사도들이 구세주에게 그의 재림과 세상의 종말의 징조를 물었을 때 주님은 닥쳐 올 전쟁과 질병과 지진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와 그의 제자들이 전파하던 복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있으리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또 하나의 성구를 이사야 29장 13-14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주님의 복음이 지상에 그대로 있었다면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인간의 교리를 가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기이한 일을 이루시려 한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날 소위 기독교 세계에서 우리가 찾아 볼 수 있는 사실이며 그것은 또한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순절 다음 날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위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사도행전 3 : 19-21)

우리가 속한 교회는 만유의 회복을 주장하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만일 베드로가 참된 예언자라면 경전에 나와 있는 많은 약속에 견주어 볼 때, 어떤 사람도 개혁이 아닌 진정한 회복이 있기까지는 구세주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언한 만유의 회복이 있었으며, 그 예언자들이 다시 이 세상을 찾아 와 성신권의 열쇠와 권능 그리고 복음의 구원 의식을 집행한 권세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다시 용서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계속 잘못을 범하는 사람을 계속해서 용서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교회 회원들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심으로써 이 문제를 분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 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찌니라”(마태복음 18 : 21-22)

베드로의 질문은 “내게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묻고 있으나, 위의 질문에 보면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 죄를 범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구원의 원리를 회롱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다시 죄를 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위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죄악을 행치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한 그릇된 관념을 갖고 있을 때에는



진실로 회개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그 사람은 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42편에는 다음과 같은 성구가 나와 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회개하고 완전히 손을 떼어 다시는 범하지 아니하면 내어 쫓기지 아니하리라”(25절)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커다란 범법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원리는 회개해야 할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죄에서 손을 떼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의 각오를 갖게 됩니다.

아론 신권이 “회개와 침례, 죄사함의 복음”(교성 84 : 27)의 열쇠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아론 신권을 관리하는 감독은 회개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한 죄를 범했을 때에는 감독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감독은 교회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은밀히 감독님을 찾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독도 그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감독은 조언을 얻기 위해 회원의 비밀을 스테이크 부장에게 이야기해야 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때에도 대개는 그 회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은 교회가 밟는 과정으로, 회개한 죄인에게 신권의 권능선으로부터 영감받은 조언과 지시를 받게 해 줍니다.

바울이 디모테인들에게 준 조언과 훈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앎이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여 온유하며



“저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찌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디모데후서 2 : 22-26)

우리가 사랑의 모든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도 베냐민 왕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갖게 된 큰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한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기를, 우리는 참으로 왕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믿으며, 전능하신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모두 참되고 진실함을 믿나이다. 주의 영은 우리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갖게 하시어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하시나이다”(모사이야서 5 : 2)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가득 채워 “다시는 악을 좇으려 하지 않게 하시며 계속하여 선행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직 합당한 회개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리와 성약 64편에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고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서로 용서해야 하느니라. 이는 자기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는 주 앞에서 정죄받음이니, 큰 죄가 저에게 있음이라.”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리와 성약 64 : 9, 10)

이 훈계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게 되고 더욱 많은 복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98편에서 주님은 용서하고 참는 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 가족에 대하여 이르노라. 만일 사람들이 너희에게나 너희 가족에게 한 번 해를 끼칠지라도 끈기있게 참으라. 해하는 자를 욕하지 말며 복수하려 하지 말라. 너희는 반드시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끈기있게 이를 참지 아니하면 너희는 마치 공정한 자로 재는 것 같이 헤아림을 받는 자가 되리라.”

“거듭 이르노니, 만일 너희 원수가 너희를 두 번째 해칠지라도 너희는 너희 원수를 욕하지 말며 끈기있게 참으라. 너희 보상이 백배나 더하리라.”

“또 너희 원수가 세 번째 너희를 해칠지라도 너희는 끈기있게 참으라. 너희 보상은 이전의 사배를 증

가하리라.”(교리와 성약 98 : 23-26)

그와 같은 큰 시험을 이겨낸 자는 “그 보상이 사배로 증가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세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와 같은 큰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들을 몇 명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위로와 축복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다음 성구는 모든 말일성도들이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할 성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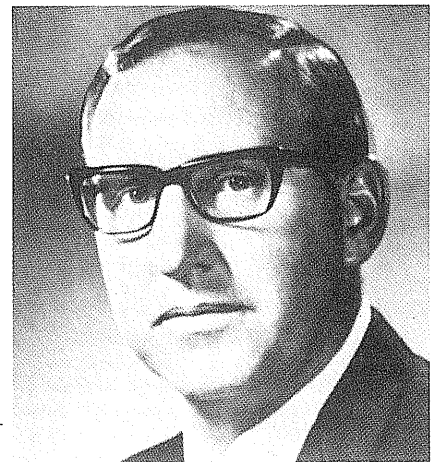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나 주는 너희에게 아무 죄도 지우지 아니하노니, 너희 길을 걸으며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나 죄를 범하는 자에게는 이전에 지은 죄까지도 겹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교리와 성약 82 : 7)

참다운 회개란 끝까지 회개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소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다운 회개를 했을 때 주님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을 때,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 93편 1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주님은 헛된 약속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같은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젊은이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한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일 이외의 다른 모든 일은 멀리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㉔



본 제이 페더스톤 감독  
 관리 감독단 제2 보좌

#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계획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은 우리가 성스러운 것으로 소중히 여기며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인 가족 형태로 인식하기 시작한 즐거운 가정 생활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신권회에 참석하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은 참으로 크며 진실되다는 것을 전해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여러분의 헌신적이고 성실한 봉사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신전은 비어 있을 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도 차고 넘치며 출석하는 회원 수와 봉사하는 회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을 갖는 가정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 회원들이 나타내 보이는 신앙과 사랑에 우리는 기쁨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 있는 스테이크와 선교부에서 회원 수가 날로 늘어나며 더욱 효과적으로 모든 교회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세계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점차 온 세계의 교회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 자리에서 지난 목요일에 몇몇 지도자들과 상의한 몇 가지 문제를 여러분께 발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모든 와드와 독립 지부에 장로 정원회 조직을 승인했습니다. 96명이 정원이었던 장로 정원회는 이제 그 수에 관계 없이 한 와드나 독립 지부에 속한 장로들로 회장단을 포함한 장로 정원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수가 96명 이상일 때에는 장로 정원회는 둘로 나누어야 합니다. 지역적으로 한 곳에 모여 하나의 교회 행정 조직에 속해 있는 장로들로 정원회를 조직할 때 잠재된 힘과 능력을 가장 크고 가치있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신권에 관한 문제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서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 스테이크 부장이 그가 관리하는 스테이크의 칠십인으로 성임하고 칠십인 정원회 회장으로 성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표된 지금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스테이크 지도자와 칠십인 사이에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지연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더욱 훌륭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가 선교 사업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도자 여러분, 지침서와 공보를 읽으신다면 그렇게 많은 편지를 보내는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신전 접견 문제에 대해 여러분이 특별히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원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감독과 함께 상의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이 아들을 올바르게

1974년 9월호

**이웃**

오늘 저녁 이 신권회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토요일 저녁에 있는 신권회에 참석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말로 큰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좌석에 앉기 위해 한두 시간 전에 벌써 이곳에 와 있었으며 그 밖의 수많은 아버지와 아들이 태버내클로 그리고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스테이크와 와드의 건물에 모였습니다. 이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다는 것

교육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치하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며 여러분의 신앙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성년이 된 여러분의 아들 중에 많은 수가 선교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 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삶을 충만하고 풍성한 것으로 하려면 여러분은 생애를 계획해야 합니다. 현재 집사로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장차 선교사 생활을 하기 위해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장차 가질 직업이나 평생을 두고 해 나갈 일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이 앞으로 변호사나 의사나 교사나 또는 기술자가 될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고 있으나 그래도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결정했어야 했거나 지금 결정을 내리려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결혼할 때까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결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장 성실한 집사와 교사와 제사가 되겠다고 결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 변경할 수 없는 성약으로 맺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합당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선용할 때 생활은 균형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나갈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을 때 영광스러운 사명

을 다할 수 있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부터 돈을 벌어 저축하여 그것으로 선교사 생활을 수행할 것을 지금 결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일생의 가장 중요한 그 기간 동안을 위해 정신과 마음과 영혼을 합당하게 준비하기 위해 공부하고 봉사하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 프로그램은 의무적인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가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의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모든 젊은 청년이 다 선교사로 봉사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교회의 대답은 “그렇습니다”란 대답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도 교회의 대답과 같습니다. 이 대답을 더 확대해서 해석해 보면 모든 젊은 청년은 집회에 참석하고 십일조를 바치고 순결한 생활을 하고 세상의 추한 것으로부터 멀리하며 주님의 신전에서 천국 결혼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하도록 누가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로  
무슨 일 하나 자유니  
영원하신 진리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압하잖네

—찬송가 126장

복음에는 강압이란 전혀 없습니다.

1833년에 주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나니, 이것이 인간이 정죄를 받는 소이니라. 이는 태초부터 존재하던 것이 명백히 드러났으나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교성 93 : 31)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담 이후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모두 침례시에 받은 성신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알려 줍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나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는 압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칠 수도 있고 욕설을 할 수도 있고 술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외설스러운 것으로 자신을 추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헛된 일로 낭비할 수도 있고 자신의 임무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성적인 죄를 범할 수도 있으며 살인마저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복음에는 강제가 없지만 죄를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고 십일조도 바치지 않고 선교사 생활도 하지 않고 신권 의무와 특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명한 사람이라면 자신이 그러한 축복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또 이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또 각 사람은 의를 손에 들고

충실로 허리를 동여매고 땅의 주민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일지이다. 또 말하거나 도망함으로써 악인에게 황폐가 임할 것을 선포할지이다”(교성 63:37) 여러분은 “각 사람”이란 말을 주의깊게 들었습니까?

우리는 물론 불결한 것에 빠져 있거나 성적인 또는 다른 죄에 빠져 있는 젊은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깊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여 그 죄를 완전히 씻은 후에라야 선교사로 보낼 것인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모든 합당하고 능력이 있는 말일성도 형제는 선교사로 봉사해야 합니다.

청결하고 떳떳하며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청소년은 자기의 진로를 계획해야 하며 자신과 하나님에게 그가 어떠한 생활을 할 것이며 그의 생애를 영광스러운 생애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성약으로 맺어야 합니다.

어떤 분의 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서 은행과 비슷한 아름다운 건물 앞에 왔다. 그런데 벽에 박아 놓은 낫쇠 간판에 ‘시간 판매’라고 새겨져 있는 것을 보니 은행은 아닌 듯 했다.

“마치 환자처럼 보이는 얼굴이 창백한 한 사람이 숨을 헐떡이며 건물의 계단을 무겁게 올라가고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 선생님! 그러는데 5년 전에 진작 찾아 왔어야 하는데 지금은 너무 늦었다는군요. 그래서 여기서 5년을 사려고 왔어요. 그 5년만 사면 의사 선생님이 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 쪽에서 또한 사람이 와서 접원에게 ‘늦게서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능력과 재능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개발하지 못한 재능을 모두 개발할 수 있도록 10년을 사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 회사에서는 내가 능력만 있다면 다음 달부터 중책을 내게 맡기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음 달에 그 회사에서 일을 맡아 볼 수 있도록 2년만 주십시오’ ‘그들은 모두 병을 얻고, 희망을 잃고, 힘없이 근심에 싸여 왔으나 떠날 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얼굴에 띄우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들에게 그렇게도 필요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시간을 샀기 때문이다.

“나는 꿈에서 깨어나 꿈에서 본 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고 결코 살 수도 없는 것을 나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내가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할 시간에는 그것을 해야 한다. 그날 아침 내가 일을 하면서 휘파람을 분 것은 나의 가슴이 행복감으로 빠근하도록 가득 찼기 때문이다. 잘만 활용한다면 아직도 내게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저자 미상)

제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세운 한 가지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온 한 지도자가 대회에서 경전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아직 한 번도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있던 그날 밤에 나는 한 블록 떨어져 있는 집으로 걸어가 곧장 집 맨 꼭대기에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조그만 탁자 위에 놓은 석

탄 기름 램프에 불을 붙이고 창세기 첫장을 읽었습니다. 일년 후에 나는 그 크고 영화로운 책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읽은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이 1,189장으로 되어 있고 장 수로는 1,519페이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거의 성경 읽기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다면 나도 읽을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14세의 소년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재미가 없는 페이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66권, 1,189장 1,519페이지를 다 읽었을 때는 나는 목표를 세워 그것을 성취했다는 큰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자랑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석탄 기름으로 밝힌 등불 아래에서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전기불 아래서 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예로 이야기하고자 한 것 뿐입니다. 나의 마음 속에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는 기쁨이 항상 깊게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내가 세운 또 다른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평생을 통해 지혜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와 지혜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받을 수 있는 축복에 대해 들어 왔습니다. 나는 담배를 썩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갈색의 물같은 것이 입가에서 새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담배를 둥글게 마는 일에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불 더럽”이나 다른 상표가 붙은 봉초 담배와 종이를 사서 하루에 몇 번씩 일을 멈추고 종이에 담배를 말아 끝을 구부리고는

그것을 피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로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 후 담배 제조 기술이 더욱 발달되었을 때에는 낱알로 된 담배를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자들이 담배를 피우기 시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또 역겹게 느껴졌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소년 시절에 내가 살던 작은 마을의 7월 4일 독립 기념 축제를 구경하러 거리로 나왔을 때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마에 참여하거나 말에 돈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입에는 담배를 물고 있었으며 주머니에 술병을 넣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에 만취되어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으며 마구 욕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경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마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한 곳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어른들과 소년들이 모두 그 싸움이 벌어진 곳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주먹과 피와 욕설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그들이 그같은 행동으로 자신을 비천하게 하는 것을 보고 역겨움을 느꼈고 그날 독립일에 붉은 페몬수를 마시며 말이 달리는 것을 구경하던 나는 이 작은 마을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술을 마시고 욕설을 하는 일을 결코 범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에 누구의 압박도 받지 않고 지혜의 말씀을 절대로 어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일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가를 알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그러한 파괴적인 요소를 취

하지 않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한 해로운 것을 멀리 하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굳게 결심하자 나 자신과 하나님께 맺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리조나주 로타리 클럽의 지역 책임자였을 때의 일입니다. 나는 로타리 클럽 국제 총회 참석차 불탄서 니스로 여행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총회에서는 축하 모임의 일부 순서로 지역 책임자들을 위한 성대한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총회를 가질 그 큰 건물이 화려한 연회를 위해 단장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았을 때 나는 한 사람 마다에 일곱 개의 잔과 갖가지 은그릇과 쟁반이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유럽의 최고 급품들이었습니다.

식사가 나오기 전에 먼저 포도주와 그 밖의 각종 알콜 음료가 나와 각 사람 앞에 놓인 일곱 개의 잔을 채웠습니다. 술의 색깔은 자기 다르고 아름다웠습니다. 나는 멀리 다른 나라에 와 있었습니다. 나는 지역 책임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시 나의 종교와 지혜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입장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악마가 “지금 이 기회요, 당신은 지금 수단리 타국에 와 있소. 또 당신을 주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소. 그 잔에 든 술을 마시든 누가 알겠소. 바로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오”라고 꾀속말로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부드러운 영이 내 귀에 대고 이렇

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당신은 결코 지혜의 말씀을 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도 그 같은 성약을 맺고 지금까지 훌륭히 그 성약을 지켜 왔습니다. 이제 이 순간에 지금까지 지켜 왔던 성약을 깨뜨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한 시간 후에 연회를 끝내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내 앞에 놓은 일곱 개의 잔에 든 화려한 색깔의 술은 한 번도 손에 대지 않은 채 한 시간 전과 마찬가지로 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내가 소년 시절에 한 경관으로부터 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 경관은 우리 집 바로 이웃에 있는 집의 현관 마루 아래에서 한 꾸러미의 흠친 물건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흠친 물건이 나온 그 집에 사는 청년은 절도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물건까지도 훔치는 절도광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말 채찍과 마차 덮개가 없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것들이 모두 그 청년의 집 현관 아래에서 나왔으며 그 청년은 자기가 물건을 훔쳤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 사실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으며 그와 같은 악습을 갖게 된 그를 얼마나 가엾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의 이웃이 그를 속이지 못하게 주의한다. 그러나 그가 그의 이웃을 속이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날이 올 때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것이며 그는 물건을 싣고 다니며 판매하는 그의 손수레를 태양의 개선 마차로 바꾸게 될 것이다”(랄프

왈도 에머슨의 완전한 글, 뉴욕주, 더블류 엠 에이치 와이즈사 1929년 출판, 585페이지)

이 청년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어 들인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은 우리의 생활에 도움을 주거나 해를 끼칩니다. 추한 생각이나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응보를 받게 됩니다.

최근에 한 신문에서 2백만불이 넘는 거액의 수표를 주운 한 소녀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소녀의 말을 빌면 그녀는 수표를 줌자 그 돈을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등 공상을 계속했다 합니다. 그러나 뒤에 그 소녀는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수표를 돌려준 보상으로 기대한 것보다 훨씬 작은 액수의 돈을 사례금으로 받았다는 기사였습니다. 왜 바른 일을 하고 보상을 기대해야 합니까? 왜 사례금의 액수에 실망을 해야 합니까? 바른 일을 하고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물건을 그것을 잃어버린 주인에게 돌려 주고 보상을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모두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 신앙개조 13조를 배우고 있거나 이미 배워 알고 있습니다.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했지만 시간이 없을 것같군요. 상회가 상품 판매의 이익금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상점 도둑 방지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소한 말일성도들이 참여하는 사회도 그와 다를 바가 없다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또 하나의 조그만 경험담으로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나는 페루의 토쿠에팔라의 한 교회를 헌납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은 탄광촌으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교회를 헌납한 후 한 회원의 집에서 회원들이 저녁을 함께 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우리들이 그 집 안을 이리저리 다니는데 한 청년이 나에게 와서 “킴볼 형제님, 저는 장차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럼 그렇게 하고 말고. 그런데 내가 저쪽 방에서 만난 분이 아버님이 아니시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네 저희 아버지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아버지께 축복을 받지 않고?”라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아버지는 축복해 주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잠깐 그 청년더러 기다리라고 해 놓고 곧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서 “훌륭한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한테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를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은 “그 아이가 내게서 축복을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조금 후에 그 두 부자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 부자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으며 청년은 자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도 아들의 축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우 기뻐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곳에 모인 여러분 젊은 형제님들은 이 이야기를 잊지 않기 바랍니다

다.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신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여러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그와 같은 청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조급은 수줍어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자녀를 이끌어 주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과 이곳에서 함께 하게 된 것은 참으로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화평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수없이 되풀이 되어 온 이야기지만 의로움만이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우리는 구원과 승영의 위대한 계획 안에서 살고 있으며 그 계획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의롭지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15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44차 연차 대회 신권회 말씀.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저는 이제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교성 133 : 5)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김볼 대관장님은 예언자시며 주님의 대변자로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분이시며, 태너 부대관장님은 계시에 의해 대관장님의 보좌로 부름을 받으신 분임을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이 두 분을 온 마음을 다하여 지지합니다.

나는 여러분들께 베드로가 그의 시대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벧전 2 : 9)라고 말했다를 때의 그분의 심정과 같은 심정입니다. 우리는 온 백성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아들로서 전세에서 있었던 천국 회의에서 아버지로부터 복음 계획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하여 질 것이요,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리라.”(아브라함서 3 : 26)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영에 육체

# 주의 그릇을 가진자여 깨끗할 지어다.

매리온 지 롬니  
대관장단 제2보좌



가 “더하여져”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 지체를 잘 지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상에서 두 가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 중의 하나는 신권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누구도 신권이 없이는 이 영광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신권에 이르지 못한 모든 자에게 화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권을 받은 형제들은 신권의 부름을 충실히 할 때 더욱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신권에 따르는 성약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내가 말한 바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르심을 영화롭게 하는 [즉 신권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권을 받고 그 신권의 부름에 충실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지금 인용하고 있는 84편 계시의 첫 부분에서 주님은 신권 소유자들을 신권 반차에 따라 모세의 자손이라 여기고 아론 신권 소유자를 아론신권 반차에 따라 아론의 자손이라 여겨 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신권을 받고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음 약속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다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니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종을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임이라.

“또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자니,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에게 주어지리라 [여기서 영광이 우리에게 영원히 더해지며 주님이 가지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약속됩니다.]

“이것이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신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 맹세와 성약을 받아들이나니[주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아들이나니] 아버지께서 이를 깨뜨리실 수도 없거니와...[우리는 이를 깨뜨릴 수 있으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를 깨뜨립니다. 다음은 바로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성약을 받아들인 후에 이를 깨뜨리는 자는[즉 신권을 존중하고 그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성약을 깨뜨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나 다음에 오는 세상에서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리라. ... [주님은 이 성구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권을 받아들이고 또 신권이 무엇인가를 알면서도 그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그 후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

는 어떤 것을 잃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영생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권을 받은] 너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임이라”(교성 84 : 33-44)

위의 말씀은 “1847년 1월 14일 아이오아주 카운실 브라프스 근처에서...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해 브리감 영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성 136 : 머릿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직 순결하지 못함이라. 아직 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충실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면 영광을 바라 볼 수 있리라. 이 말씀은 아담의 때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로부터 예수와 그의 사도까지, 예수와 그의 사도로부터 요셉 스미스까지 이른 것이니”[우리는 이를 다시 킴블 대관장까지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성 136 : 37)

나는 우리 각자가 맺고 있는 “신권에 속해 있는 맹세와 성약”에 따르는 조건을 생각해 볼 때



그 큰 축복의 약속에 다만 경외함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그와 동시에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다만 머리가 숙여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영생의 말씀”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더욱 그 말씀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 20 : 8)는 계명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하겠습니까.

오늘날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대해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이 처음으로 미조리주 인디펜덴스로 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시온을 건설하여 그곳에 살려면 지켜야 할 몇 가지 표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크게 강조하신 표준 중의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온전히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흠없이 지키고 기도의 집에 가서 나의 거룩한 날에 네 성찬을 바칠지어다.

“진실로 이 날은 네 일을 쉬고 가장 높으신 이에게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느니라.”

“...이날 곧 주의 날에 너는 네

형제와 주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며 네 헌물과 네 성찬을 가장 높으신 이에게 바치는 것을 잊지 말라.”

“또 이 날에는 다른 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정성을 다하여 식사 준비만 하여 네 금식이 온전한 금식이 되도록, 바꿔 말하면 네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지어다.” (교리와 성약 59 : 9-10, 12-1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시온의 주민은 안식일을 준수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느니라.” (교성 68 : 29)고 말했습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시온성에는 안식일에 물건을 사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오락 활동에 참여하거나 사냥이나 낚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의욕으로 충만하다면 안식일에는 방금 전에 교리와 성약에 나온 주님의 지시에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명심하여”야 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영생의 말씀”으

로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 (교성 133 : 5 ; 38 : 4 2 참조)

“...오 너희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로 심판받게 됨을 기억하라.

“너희가 시험의 날들을 완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마당에서 불결하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불결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음에 영원히 버림을 받을 것이라.” (니파이일서 10 : 20-21) 이는 니파이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왕국은 더럽지 아니하며, 청결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 매...” (니파이일서 15 : 34)

6백년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니파이인 제자들에게 “청결치 아니한 것이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신앙을 갖고 죄를 회개하며 끝까지 충실하여 나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한 자가 아니면 결코 아버지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로다.” (니삼 27 : 19)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 예수님은 대회에 모인 형제들에게 “악인 가운데서 떠나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그릇을 지닌 너희여 깨끗하라...” (교성 38 : 42)고 말씀했습

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인에게 한 바울의 다음 말씀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전 3:16-17)

우리가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항상 경계를 해야 할 청결치 못한 일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지혜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포도주나 독한 음료를 마시는 자 있으면 보라, 이는 좋지 아니하고 또 너희 아버지 보시기에도 합당치 아니하니, 담배는 몸이나 위장을 위한 것이 아니니...”

“또 뜨거운 음료는 몸이나 위장에 좋은 것이 아니니라”(교성 89:5, 8, 9)

어떤 종류의 습관성 약품이라도 사용한다면 이는 지혜의 말씀의 정신에 위배되며 육과 영을 더럽힙니다.

신권의 부름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하는 신권 소유자는 무엇이나

허용하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불결한 요소를 역병처럼 여겨 피해야 합니다. 그러한 불결한 요소는 문학이나 연극 혹은 영화 그리고 오락장이나 그밖의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결한 신전을 그의 면전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크게 만연하고 있는 가장 추하고 퇴폐적인 악의 하나는 성적인 부도덕입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계명 “간음하지 말찌니라.”(출 20:14)라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새겨 두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간음의 벌은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죽음입니다. 타락을 허용하는 이 시대에서는 간음을 범하고도 벌을 받지 않지마는 하나님의 성스러운 율법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그 죄를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로 규정합니다. 그 죄의 형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간음한 자로서 용서받지 못한 자는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수행하지 못합니다. 클라크 부대관장님은 주님께서 “결혼한 자의 간음과 결혼하지 아니한 자의 간음에 차별”(1949년 10월 대회 보고 194페이지)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늘 말해 왔습니다. 나는 여기에 추가하여 간음과 성 도착에 주님께서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따라야 할 표준을 제시하셨습니다.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 다음에 주님은 이 죄의 중대함을 강조하시면서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즉 그 오른 눈 때문에 네가 실족하게 되거든] 빼어 내 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마 5:27-29)라고 계속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신권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여 영생을 얻고 “[우리의] 머리 위에 영광을 영원토록 더하여”지게 하기 위하여 신권 소유자들은 “...주의 그릇을 가진 자여 깨끗할지어다.”(교성 133:5)란 주님의 계명을 온 정성을 다하여 지키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이같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 144차 연차 대회 신권회 말씀



하나님의 신권을 소유하고 계신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세계 각처에서 모인 우리는 온 세계에서 가장 강한 형제애와 힘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병입니다. 우리가 신권 소유자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강한 형제애를 함께 나누는 회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며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영적인 양식을 얻었으며, 신앙과 간증을 더욱 강하게 하였고, 또 이 아름다운 합창도 들었습니다. 이제 조금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며, 현재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대변자이신 예언자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귀있는 자”(마 11:15)가 되어 이 위대한 지도자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님을 따르겠다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져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네분의 예언자의 보좌로서 봉사할 특별한 특권과 축복을 받아 온 사람으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은 그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성임하시고 성별하시며 이러한 대관장의 계승 절차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성역을 베푸시며 그의 교회를 조직하시고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 둘을 택하여 사도”(눅 6:13)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의 사도들에게 이르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8:18)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주님은 사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기 열쇠 및 권능과 함께 사도의 직을 부여해 주셨으며 따라서 모두 그의 차례가 되면 선임 사도 또는 대관장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가 떠나신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교회의 대관장단

# 주님의 택함을 받은 자

엔 일든 태너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성별되었습니다.

말일의 교회도 이와 같은 원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나타나 그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하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사도로 성임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요셉 스미스 2세가 교회의 첫 장로로 부름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너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견자와 번역자와 예언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교회의 장로로 불리우리니

“성령에 감동되어 교회의 기초를 닦으며 이를 가장 거룩한 신앙으로 세워 일으키리라”(교성 21:1-2)

교회가 조직되기 이전인 1829년 6월, 예언자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사도가 있을 것과 또 그 사도가 어떤 방법으로 택함을 받을 것인가를 이미 알았지만 실제로 십이사도 정원회가 조직된 것은 1835년의 일이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은 물몬경의 세 목격자로 하여금 사도로 성임될 열 두 명의 사람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정사 제2권 186-87페이지, 교리와 성약 18편)

이들 열 두 명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지시에 따라 택함을 받고 사도로 성임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 바울과 그밖의 사도들에게 주어졌 것과 같은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교리와 성약에 보면 “저들은 정원회를 구성하며 권위와 권능에 있

어서 앞서 언급한 세 관리 대제사와 동등하다”(교성 107:24)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 관리 대제사는 대관장단을 뜻합니다.

또 교회 정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계속해서 십이사도의 임무와 현 대관장단에 다음 가는 그들의 권능에 대해 설명했다. “...십이 사도는 대관장단 즉 나와 시드니 리그돈과 프레데릭 지 윌리엄즈를 제외한 사람에게는 순복하지 않는다. 내가 없다면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죽을 때를 뜻한다] 십이사도를 이끌 대관장단은 없게 된다.”(교회 정사, 제2권 373-74페이지)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가 여기에 있으며 인자가 오실 때까지 여기에 머무를 것이라는 사실을 말일성도들에게 전해 드립니다. 온 이스라엘이 이를 이해해야 하겠습니까...생명을 호호했던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열쇠를 갖고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월포드 우드럽 설교집, 지호머 더럽 편, 북크래프트 사, 1946년 73-74페이지)

예언자 요셉이 순교당한 후 브리감 영은 다음과 같은 말로 모임을 소집했습니다. “여러 신권 정원회의 회원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특별 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그는 모임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나의 부름을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부름받은 사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왕국의 열쇠를 쥐고 행사할 수 있도록 성임받고 기쁨부음 받은 예언자 요셉을 통해 주신 계시에 의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를 이 백성의 대관장단으로 지지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장일치로 이 제의가 받아들여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반대 의사를 묻자 누구도 손을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 신권 정원회에 대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성회에서 한 것과 같이 순서대로 지지를 얻으려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지지로써 다른 질문이나 정원회 별로 지지를 물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교회 정사 제7권 230, 232, 240페이지) 그는 십이사도는 그대로 그들의 직분을 가지고 행사할 것이며, 새로운 대관장단이 조직되기까지 왕국의 열쇠가 십이사도에게 있어 그들이 교회의 일을 처리하고 모든 합당한 일을 지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스미스가 순교당한 후부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 때에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3년 반 동안 교회를 이끌어 왔으며 그 후에 새 대관장단이 조직되고 브리감 영이 대관장으로 성별되었습니다.

월포드 우드럽 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를 관리하도록 부름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첫째,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누가 교회를 관리하는 권능을 갖게 됩니까?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성임되고 조직된 십이사도 정원회가 그 권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십이사도 정원회가 교회를 관리하는 동안, 누가 교회의 대관장입니까?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대관장입니다. 그는 대관장단을 조직하기까지 십이사도 정원회를 관리하는 동안에 사실상 대관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상은 1887년 3월 28일에 히버 제이 그랜트 장로에게 보낸 월포드 우드럽의 편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우리는 약 100여년 동안 이 원칙에 따라 왔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볼 때 대관장으로 택할만한 사람은 예임된 사람이며 그 시대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도 분명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브리감 영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장차 대관장이 될리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브리감 영 대관장께서 먼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되고 후에 대관장이 되는 그 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모두 그분이 그러한 부름을 받도록 하는 교량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 오래 전에 마치 예레미야나 그 밖의 예언자가 그랬던 것처럼 이미 예임되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이 순교하자 대관장으로서의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셉은 교회를 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특별히 받았으며 많은 예언자들보다 훨씬 영감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언자를 이어 브리감 영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갈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영 대관장님도 그 시대에 수행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과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지도자요 개척자요 조직자였습니다. 그분은 예언자 요셉이 예언한 바와 같이 교회를 이끌며 교회를 록키 산맥 안에 세워야 할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존 테일러 대관장이 어떻게 후대의 일을 위해 생명을 보호받았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 확신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가히 순교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언자 요셉이 되살릴 때 함께 그곳에 있었으며 그도 흉탄에 맞아 치명적인 중상을 입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대관장으로 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동안에 그분은 참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대관장님들에게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 대관장님의 재임 기간이 비록 짧은 것은 하지만 그 동안에 그의 지시 하에 교회 내에서는 많은 발전이 있었고 많은 것이 성취되었으며 교회의 기초는 앞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더욱 굳건하게 다져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택함을 받고 예임된 새 대관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30년 이상을 사도로서 어려움을 겪어 왔고 시험을 받았으며 단련되었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높고 거룩한 직분을 맡기 위해 세 번씩이나 기적적으로 생명의 위기에서 보호받아 온 분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풀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천국 회의에서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예임되었다.”(365페이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없이 거듭 들어 온 바이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부르시며 주님께서 그의 예언자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 이외의 다른 어떤 권세로도 예언자를 부르거나 세상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대관장이 돌아가시면 십이사도 정원회가 그 직분을 맡게 되며 선임 사도 즉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이 관리 역원이 됩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질서로 교회를 인도해 왔는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리 대관장님은 자신이 얼마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시고는 롬니 부대관장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너 부대관장은 지금 멀리 가 있으니 롬니 형제가 교회의 일을 맡아 처리해 주기 바라오” 조금 후에 김블 형제가 병원에 와서 롬니 부대관장을 도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리 대관장님의 서거를 발표한 직후에 그 자리에서 롬니 부대관장은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김블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형제님이 이제 교회를 관리하셔야 합니다. 저는 형제님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언제나 대관

장단이 있으며 대관장의 계승이 얼마나 순조로운가를 보여 주는 모범입니다.

김블 사도는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서 즉시 교회의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김블 대관장님이 대관장으로 임명되고 성임된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14년 전인 1960년 4월 4일의 대회에서 김블 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포동포동 살이 오른 귀여운 자기 아기를 내려다 보면서 장차 그 아기가 자라 대관장이나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마음에 그려 보지 않는 어머니가 있겠습니까! 그 아기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정치가도 되고 지도자도 되고 예언자도 됩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꿈 중에 어떤 것은 실현됩니다. 웨익스피어가 그랬고 미켈란젤로가 그랬으며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랬고 요셉 스미스가 또한 그의 어머니의 꿈을 실현시켰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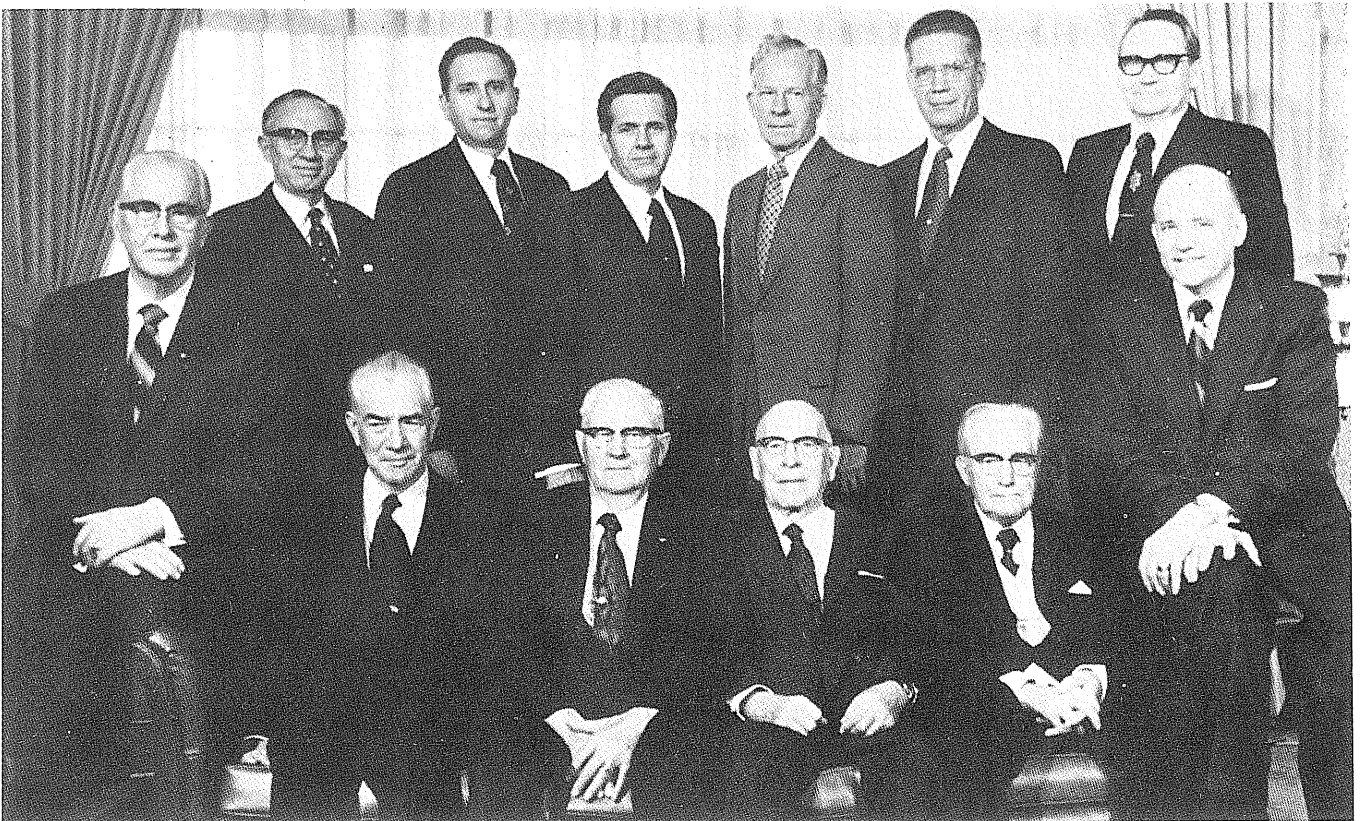
“신학자들이 비틀거리며 쓰러질 때 입으로는 가식적인 이야기를 하나 마음은 방황하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암 8:12) 언지 못할 때, 파오의 구름이 걸히고 영적인 암흑을 꿰뚫고 하늘이 열려야 할 때, 한 아기가 탄생합니다. 이 얼마나 예언적인 말씀입니까!”

(1960년 4월 대회 보고 84페이지)

1895년 3월 28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그와 같은 아기가 태어났으니 그 아기의 이름은 스펜서 울리 김블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보이드 케이 팩커 장르가 그의 아름다운 필치로 그린 이 위대한 사람의 출생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1974년 7월호 성도의 빛에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윌포드 우드럽 대관장님은 대관장이 세상을 떠나면 곧 다음 대관장단을 조직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돌아가신 지 나흘 후인 1973년 12월 30일에 당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김블 대관장님은 대관장단을 다시 조직하고 그곳에서 결정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사도들을 신전 다락방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대관장의 보좌였던 롬니 형제와 나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김볼 장로는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마음과 아직 하실 일이 많아 그분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아직 멀다고 생각한 개인의 뜻을 전하고는 서열에 따라 사도들을 차례로 불러 대관장단의 재조직에 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도들은 모두 지금이 대관장단을 조직할 때이며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이 지금 이 교회를 관리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분으로 생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의 영이 충만하였으며 그곳에 모인 형제들의 마음은 하나로 일치되었고 따라서 그들의 말도 완전히 일치되었습니다. 유일한 목적과 소망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티끌만큼의 의심이 없었으며 주님의 뜻만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대관장단을 조직할 것과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을 대관장,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로, 그리고 교회 재단법인 이사장으로 지지하고 성임하고 성별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했습니다. 이 제의에 대한 동의가 있는 후에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앞으로 나와서 이 결정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가 주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과 축복이 그에게 임할 것을 기원했습니다. 그는 항상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대관장으로서 주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그가 항상 건강과 활력을 얻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내 카밀라와 함께 리 대관장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왔으며 이 직분이 그에게 결코 오는 일이 없을 것이며 리 대관장님은 자기보다 더 오래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 때 갯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 : 39)라고 기도하신 구세주를 생각했습니다. 김볼 대관장님은 그렇게 해서 대관장의 직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관장님은 그의 제1보좌와 제2보좌로 엔엘돈 테너와 매리온 지 롬니를 각각 택하여 임명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

은 김볼 대관장님을 대관장으로 받들고 지지하며 온 정성을 다하여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겸손히 그러나 의연히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런 후에 벤슨 사도께서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지지받았습니다. 다음에 김볼 대관장님은 방 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모두 그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이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의 가슴에 충만했습니다. 벤슨 정원회 회장께서 그들의 대변자로서 훌륭한 기도와 축복의 말씀으로 스펜서 울리 김볼을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예언자, 선전자, 계시자, 그리고 대관장으로 성임하고 성별하셨습니다.

교회의 계획과 질서가 실행되었으며 스펜서 더블류 김볼 대관장님은 지상에 있는 주님의 교회와 왕국의 예언자요 대관장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과 온 세계에 간증드립니다. 그가 임명된 후에 스테이크 대회에서 그리고 오늘 가진 성회에서 회원들은 열렬히 그를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김볼 대관장님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지지하며 그분의 지시에 따라 우리의 온 힘을 다하여 왕국을 건설하고 의의 대업을 펼쳐 나가며 우리의 주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을 수 있도록 세상을 준비해 나가는 것은 커다란 특권이며 영광이며 또한 책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직도 대관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우기 자기가 대관장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글로 보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절차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여러분은 주님의 교회와 왕국의 회원으로서의 특권과 책임과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과 예언자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책임과 특권과 축복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합당한 회원이며 신권 소유자로서도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 대

하여 주님께서 책임을 지고 계시므로 그들이 잘못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 했을 때 그 책임을 벗게 해주시는 이가 주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기 위해 선택된 권능가진 자를 거역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영을 우리로부터 앗아 가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주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주님의 축복을 받고자 원한다면 우리의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그분에게 성실해야 하며 불평이나 불만의 말을 하거나 험담을 해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의 직분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아니 됩니다. 세 목격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며 천사의 손으로 신권을 받은 올리버 카우드리나 대관장단의 제1보좌였던 시드니 리그돈과 같은 높은 직책에서 일하던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예언자를 비판하고 의심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신앙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지도자로 택함을 받은 그분을 지지하고 보필하며 따르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으며, 우리가 가족을 가르치고 격려하여 성실하고 활동적인 회원이 되게 할 때 우리와 가족에게 주님의 영이 항상 함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그의 예언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의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지옥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임이니, 주 하나님께서 압후의 세력을 너희 앞에서 흠으시고 너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을 진동하게 하시리라 “이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심이니, 나는 저에게 영감을 주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능한 권세로 시온의 대업을 추진시키리니...”(교리와 성약 21 : 5-7)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144차 연차 대회 신권회 말씀.

# 1973년도 통계에 나타난 교회의 성장

1973년 말 현재 시온의 스테이크 수 .....630  
 와드 수 .....4580  
 스테이크 내의 독립 지부의 수 .....1, 127  
 1973년 말 현재 스테이크 내의 와드 및 독립 지부의 수...5, 707  
 1973년 말 현재 선교부 산하의 지부의 수 .....1, 817  
 1973년 말 현재 선교부의 수108  
 1973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회원  
 스테이크 내 .....2, 856, 210  
 선교부 내 .....465, 346  
 총 회원 수 .....3, 321, 556  
 1973년도 교회의 성장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축복받은 어린이 ..... 68, 623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침례받은 어린이의 수 .....48, 578  
 스테이크 및 선교부에서 침례받은 개종자의 수 .....79, 603  
 회원 출생 결혼 사망 통계(스테이크에서 온 1973년도 자료에 근거한 통계임)  
 회원 천명에 대한 출생 수 .....25, 64  
 회원 천명에 대한 결혼 수 .....14, 72  
 회원 천명에 대한 사망 수 4, 91

## 신 권

1973년 12월 31일 현재 아론 신권을 소유한 회원의 수,  
 집사 .....140, 549  
 교사 .....102, 924  
 제사 .....164, 668

성도의 빛 1974년 9월호

아론 신권 소유자의 총 수 ..... 1408, 14  
 1973년 12월 31일 현재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회원의 수  
 장로 .....280, 351  
 칠십인 .....24, 490  
 대제사 .....99, 886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의 총 수 ..... 404, 727  
 아론 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한 회원의 총 수...812, 868  
 한 해 동안에 증가한 신권 소유자의 수 25, 932명이다.  
 보조 조직(등록회원)  
 상호부조회 .....785, 000  
 주일학교 .....2, 564, 134  
 아론 신권 상향회 청남 171, 377  
 아론 신권 상향회 청녀 212, 040  
 초등협회 .....471, 538  
 멜기세덱 신권 상이회...625, 000  
 복지 계획  
 한 해 동안에 도움을 받은 사람의 수 .....103, 100  
 직장 알선을 받은 사람의 노동

일 수 .....154, 306  
 복지 계획에 바친 장비의 노동일 수 .....4, 756  
 계보 협회  
 1973년도에 대리 신전 의식을 받은 선조의 수 .....2, 718, 421  
 세계 27개국에서 한 해 동안 계보 협회에 들어온 계보 보고는 백피트 짜리 마이크로필름으로 796, 804통에 달하며, 이를 책으로 만들면 300페이지 짜리 서적 3, 801, 373권이 된다.

## 신 전

15개 신전에서 집행된 1973년도 신전 의식의 횟수  
 생존자를 위한 의식 .....71, 555  
 죽은 자를 위한 의식...8, 836, 044  
 총 의식 집행 수 .....8, 907, 599

## 교회 학교 제도

신학 연구원을 포함한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의 1973년도 등록생 수 307, 086

## 다시 만난 한국 성도들에게

유진 피 킬 선교부장

선교사라면 누구나 한때 자기가 주님을 섬기던 나라에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면 옛날의 동반자와 함께 또다시 그곳에 가서 선교사 금식 간증회에 참석하여 지난날 그들이 젊었을 때 싹트기 시작했던 사랑을 다시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는 동반자와 함께 찾아 개종시킨 회원을 다시 방문하는 꿈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일 꿈을 간직한 선교사가 계속해서 상상의 나라를 편다면 옛날의 동반자와 친구와 더불어 다시 방문하는 것 이외에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얻게 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는 더할나위 없이 즐거운 경험을 갖는 것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월 10일 나는 엘 에드워드 브라운 선교부장과 함께 이와 같은 우리의 꿈이 실현되고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1960년에 헤어진 이후로 서로 잠시 대면한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동안 세월이 지남에 따라 서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매우 깊어졌습니다. 김포 공항에서 만나자마자 우리는 서로 팔을 끼안으며 거의 15년 전 젊은 선교사 시절에 우리의 마음에 심어진 깊은 사랑의 유대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머리에는 알마가 14년이 지난 뒤 모사이아의 아들들을 보았을 때 그들이 복음 가운데서 강한 자들이 되어 있었으며 아직도 그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하였다는 내용이 실린 알마서 17장의 처음 몇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이래 브라운 선교부장은 내게 영감을 주어 왔었습니다. 나는 한국 선교부장으로 서 그의 뒤를 계승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메시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교회의 일을 지시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진실로 영감을 주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금년 6월 솔트레이크시티를 방문하였을 때 나는 킬 자매와 함께 김볼 대관장님을 직접 만

나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에 관해 말씀하시는 가운데 김볼 대관장님은 한국인에 대한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표시하셨으며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느낀 깊은 감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시다가 내게 얼굴을 돌리시며 부산에 스테이크를 조직할 수 있게 한국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책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나는 이 목표를 받고 나서 예언자의 지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시하기 위해서 영감을 얻으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8월 12일 선교사 86명이 한국내의 각 지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산에는 특별한 선교 지역이 이룩되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장 유능한 선교사 16명을 이곳에서 일할 선임 동반자로 파견하였으며 그들에게 이 지역을 부산 스테이크를 조직할 수 있는 곳으로 준비하는 책임을 맡겼습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 몇달동안 계속해서 스테이크 조직을 위한 준비를 체계 있게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회원들이 협조한다면 예언자께서 제시한 목표는 짧은 시일내에 달성될 것입니다. 부산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회원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대목을 되풀이 하여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지 사람들을 찾기 위해 오지는 않았습니다. 선교사는 여러분의 가정에 초청한 4명 중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상에서 만난 1,000명의 구도자 중 한명꼴 정도로 밖엔 침례를 주지 못합니다. 구도자를 가르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도자를 찾는 데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눈앞에 다가 왔습니다. 한국을 준비된 나라로 만드는 책임은 한국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